SEP 2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27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36–937 1982년 9월 24일(금) & 2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September 24 & 2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민속춤의 정수—

국립무용단 캐나다 첫 선

토론토 공연은 6, 7일 라이어슨극장

한국 전통무용의 정수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공헌하고 있는 한국국립무용단(Korean National Dance Company)이 최초의 캐나다 공연을 위해 오는 10월3일 몬트리얼에 도착한다.

멕시코·브라질등 중남미를 순회하고 캐나다에 오는 국립무용단 일행 35명은 몬트리얼에서 2회, 토론토에서 2회, 오타와에서 1회, 모두 5차례 공연한다.

토론토공연은 6일과 7일 저녁8시 라이어슨극장에서, 몬트리얼공연은 4일과 5일 객석 1,253개의 메아뜨르·메조네브·플라스 데 아르(Theatre Maisonneuve Place des Arts)에서, 오타와공연은 9일밤 1회 객석 600석의 샤또·로리에 호텔 볼룸에서 있게 된다.

프로그램은 제1부 화관무, 춘앵무, 부채춤, 장고춤, 승무, 북춤등을, 제2부에서는 봉산탈춤, 강강수월래, 살풀이, 농부춤등 모두 13가지.

여성무용수 20명, 남성무용수 6명, 반주를 담당한 국악인 5명및 임원 4명으로 구성된 35명 일행은 송범, 김백송, 김천흥, 최현, 국수호씨등 한국춤의 대가들이 안무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토론토공연 티켓은 일반석 $12.50, 특별석 $16.50, 학생과 노인은 $10, $14씩 받는다.

최근 시설을 보수한 1,250석의 라이어슨극장(43 Gerrard St.) 매표소에서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예매되며 또 비자(Visa)카드 소지자는 전화 595–5088로 예약할 수 있다.

토론토공연은 한인회(회장 박인순) 후원으로 개최된다.

국립무용단은 1962년 30명 단원으로 창단된 이래 지금까지 3백여차례 공연을 가졌으며 현재는 60여명의 단원을 확보하고 있다.

68년 멕시코올림픽, 72년 뮌헨올림픽, 76년 미국독립 2백주년 기념행사등에서 친선사절로써 공연, 한국의 예술을 알리고 외교에 기여한 것을 비롯,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등 세계 각처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과 더불어 1950년에 설립된 국립극장 산하 6개 단체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할 35명 일행의 단장은 김치곤씨, 총무 이용만씨, 무대감독 박인원씨, 기술감독 변방원씨이다.

그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용단

남자: 국수호, 박정목, 장영일, 최용춘, 강이섭, 송병우(6명)

여자: 이문옥, 김미옥, 김향금, 이미미, 이화숙, 이경임, 조은화, 홍혜경, 신규영, 최정임, 이홍의, 이화선, 김경미, 이미경, 양성옥, 최성신, 양성미, 이지영, 권은희, 박갑순(20명)

◉음악반주: 이세환, 이희명, 박용호, 이준식, 황병주(5명)

몬트리얼 공연의 티켓값은 $18.50, $15.50, $12.50씩, 플라스·데·자르 박스오피스 (514)842–2112로 문의하면 된다.

오타와 공연은 학생, 노인 할인이 없이 전 좌석이 $16.50씩, 전화문의는 (613)237–4400.

◆국립무용단이 보여줄 봉산탈춤의 한장면.

인터뷰

◆홍신득여사

"이제 마지막 청문회도 끝났고, 조용히 뱅쿠버쪽으로 이주, 새 직업에 정진하겠다."고 고 이봉재씨의 미망인 홍신득(37)여사는 말했다.

22일 토론토에서 열린 고 이봉재씨 범죄피해보상위원회는 홍여사에게 장례비 보상조로 1,2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다른 피해보상액은 이봉재씨의 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어 보류했다.

2년전인 80년9월16일 비스밀크스토아에서 매니저로 일하던중 권총강도를 만나 불의의 희생을 당한 이봉재씨. 어쩌면 캐나다 전교민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75년 3월 캐나다로 이민 온 이씨는 이 직업, 저 직업으로 옮겨 확실한 수입액을 책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것이 최고 $15,000 또는 월 $500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지급을 지연시키는 이유이다.

장례비보상금 $1,200로는 근 3천달러가 넘는 변호사비도 안된다.

"어제는 보상을 못받는 억울함보다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2년전의 슬픔이 되새겨져서 우울했다"는 홍여사는 다음주쯤 뱅쿠버로 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고 이봉재씨미망인 뱅쿠버로

범죄피해 보상비는 미확정

미망인이 된후 LA, 뱅쿠버등지의 친척들을 찾아 여행하면서 근로자보상위원회에서 나오는 월492달러로 생활해 온 홍여사는 "아직 재혼할 생각은 없다. 당분간 독립생활을 계속하겠다"면서 "이제 지난일을 갖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나같은 희생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죽음을 가져온 두범인은 지난2월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판매세확장으로 경기더욱 침체

우유한컵도 음식점에서는 과세

지난 5월의 온타리오주 정부 신예산으로 판매세가 햄버거, 피자등 값싼 즉석음식으로까지 확대되자 가뜩이나 떨어진 경기는 더욱 침체, 음식점, 정비업소등의 불경기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가지 판매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유행한다. 도너츠가게에서 빵을 기름종이에만 싸주면 즉석음식이 돼서 판매세(7%)를 내야하고, 집에 가서 먹도록 종이봉지에 넣어주면 식료품으로 간주, 판매세를 적용안해도 된다. 또 이같은 간이음식점에서 밑파이(Meat Pie)를 사도 뜨겁게 만드는 즉석에서 사거나 차가운 것을 사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오븐등에 데우면 세금을 내야한다.

아이스크림도 콘에 담아서 소량을 사면 세금을 내야하나 그릇에 담은것을 사면 세금을 안낸다.

과일, 우유, 요구르트등도 식료품상에서 사면 양과는 관계없이 세금을 안내나 음식점에서 살 경우는 세금을 내야한다.

주정부세무관 브록·스미스씨는 이런 간이음식에 대한 판매세 적용에 대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세금을 내야하나 이 음식을 집에 갖고 가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음식에 대한 세금공세로 피자집등 간이음식점의 판매고는 급히 떨어졌고 세금때문에 팁까지 줄어 피자배달부나 웨이트레스의 호주머니까지 말리고 있다.

판매세확대로 가장 피해를 입었다는 간이음식점협회는 이 판매세 공세로 인해 6월판매고가 10%, 7월이 17.2%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판매세확장 피해자는 음식점뿐 아니라 노동비에도 세금을 매겨야하는 정비업소에 까지 미쳤다. 휘시즌 자동차정비업소 주인 리치씨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세금이 줄어야 한다. 손님들이 한결같이 세금불평을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등 대통령순방국에

해외협력조사단 파견

(서울23일=연합)최근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 순방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협력조사기획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경제기획원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 전담기구는 경제기획원차관을 수석으로 하는 해외협력 실무위원회와 경제기획원국장급을 수석으로 하는 2개의 해외협력조사부를 포함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전대통령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순방과 지난해의 아세안회원국 방문에서 합의된 사항의 실행여부를 감독한다.

한편 2개의 조사기구는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동남아시아, 호주등 4개지역에 해외협력조사단을 곧 파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한인회 각 단체 협찬으로 개최예정

11월에 한인청소년 예술제

토론토 한인회(회장 박인순)는 22일밤 한인회관에서 가진 임원회에서 오는 11월 초순경 한인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인회는 10월중순에 갖기로 했던 한인예술제를 취소하는 대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광장을 마련, 각 예술단체의 협찬으로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며, 공연티켓 수익금중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와이즈멘즈 클럽이 추진중인 한인양로원 건립기금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예술제를 추진하기 위해 한인회는 대학생 연극인들, 한인교향악단, Y합창단등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관민합동경제위

해외활동권장목적

(서울 22일=연합)정부는 해외경제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민합동경제위원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변소식통이 2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하에 행정부와 기업체간의 접촉을 보다 원활히 하기위해 경제관계장관들과 경제단체장들로 구성되며, 외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심의하고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안에 데이타·뱅크(자료은행)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수집되는 해외의 경제정보를 경제단체와 정부기관에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 고▶

한국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영원한 민족의 얼을 기리고, 독립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청사에 빛내기 위한 「독립기념관」건립기금 모금열이 한국내에 넘치고, 해외에까지 번져, 이 운동은 명실아우른 거족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그에 호응, 본사는 캐나다 교민사회에서 「독립기념관」건립기금 모집을 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1차로 아래 인사들이 기금을 의탁해 왔다.

원×× $100
박진근 $100
김숭택 $100
박대인 $200
소 계 $500

모집기간 : 82년9월 –
보낼 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 M6H 1Z7)
전화 : 533–2361

※겉봉에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이라고 쓸 것.

조상의 독립심 기리는 성금
너도 나도 참여하자

외은 불루어지점

토요영업 중단

토론토 외환은행 불루어지점(지점장 김남수)은 지금까지 2시간씩 실시해온 토요 영업을 10월부터 당분간 중단한다.

외환은행 본점과 지점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3시, 금요일은 10시~6시까지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란대 / 금리 / 화점 / 장 / 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웅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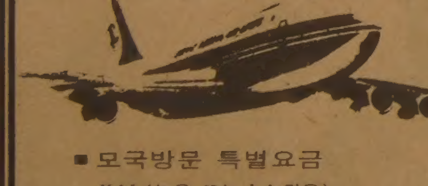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 - 1692
<R> 245 - 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년 보증
PAPER –SERVICE– REPAIR –
252–7377 , 안수일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의 날, 워-커-톤 동시행사
기금 속속 내도, 자전거도기증

토론토 한인회는 10월3일 개천절을 기념하여 캐나다 정부가 선포한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식을 한인 양로원건립 모금을 위한 보행마라톤 워-커-톤 개회식과 아울러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아침 10시에 시작될 기념식장에는 프랭크·드레 온타리오주 사회복지성 장관및 이상훈 총영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래리·그로스맨장관의 축사는 취소되었다.

한편 박인순한인회장이 대회장인 워-커-톤대회는 23일 현재 총 $2,395.00의 양로원건립기금과 $200 상당의 10스피드 자전거 10대, 도넛 600개를 기증받았다.

◆양로원 건립기금 기증자

박인순 $300
원재훈 $50
김신우 $50
이인덕 $100
함병섭 $50
신세계여행사 $200
오원균 $100
한일은행 $200
경기동창회 $495
한인장로교회 $500
김재용 $100
윤용섭 $50
문영환 $50
이건길 $100
천용기 $50

◆자전거 기증자

차선경(2대), 최상수, 라상선, 김이열, 박경태, 김명규, 유영갑(Robert), 유영갑, 이영현

◆강준남 도넛600개

"이스라엘 학살개입"
BBC방송, 새 증거제시

이스라엘군 사령관들은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대학살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 적어도 하루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22일 나타났다.

영국의 BBC방송이 청취하고 런던의 「데이리·텔레그라프」지가 인용 보도한 이스라엘군 라디오방송에 의하면 팔랑헤군의 2개 난민촌 파견결정은 다름아닌 이스라엘 육군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라프지는 21일자 신문에서 BBC의 청취반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육군이 학살작전을 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했음을 이스라엘군 방송이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라프지는 이스라엘군 방송이 새벽 0시12분(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오늘밤 사브라와 샤티라 지역과 인근 난민촌을 습격하지 않고 대신 팔랑헤당원들에게 이 습격작전 임무를 맡겼다"고 방송했으며 그후에 다시 "이스라엘군은 오늘 서베이루트 포위를 완료했다. 군이 지금 모든 주요도로를 장악하고 있으며 남은 문제는 습격하는 것이다. 주지된 바와같이 습격임무는 기독교 팔랑헤당원들에게 이미 맡겨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우익민병대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18일, 즉각 이에 개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문들은 22일 학살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말을 인용, 학살에 대한 보고가 사바라난민촌에서 탈주한 팔레스타인 난민들로부터 17일 오전부터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낙하산부대의 한 사병은 「예루살렘·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17일 11시경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난민촌에 들어가지 못하게 명령하면서 팔랑헤장교들과 접촉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팔랑헤민병들은 이스라엘군의 완전지원하에 사브라난민촌에 침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기 일간지인 「예디오트·아하로놋」지는 팔랑헤장교의 말을 인용, 민병들은 12세이상의 남자는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포드도 가격하락
에스코트L 4도어$6,712

캐나다 포드(Ford)자동차회사는 캐나다 G.M.사의 뒤를 이어 83년도형 소형승용차에 대한 가격인하를 22일 발표했다.

포드측은 대형차나 특수차의 가격은 오를 것이지마는 대부분의 소형차 가격은 내려 포드자동차는 전제품의 가격을 평균 $15 내렸다.

일년전 82년도형 자동차가 새로 나왔을 때는 가격이 6%가 올랐으나 금년도에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 포드등 미국계 자동차회사들이 이같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하내용을 보면 에스코트L 4도어의 83년도형 모델은 $228가 떨어져 $6,712로, 포드 EXP는 $450 인하된 $7,740, 페어몬트 푸투라 S는 $360가 하락된 $7,006로 각각 판매된 예정이다.

소형차가 아니면서도 가격이 떨어진 모델은 링컨 콘티넨탈로 11%인 $3,557가 하락, $27,845로 인하조정되었다.

한편 가격이 인상된 모델을 보면 모스탕L은 $359 오른 $8,019, 크라운 빅토리아(포·도어)는 $629 오른 $12,081, 링컨(포·도어)은 $995 오른 $22,340로 각각 상향조정되었다.

새 映画

삐아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生을 노래로…

4피트10인치 키에 85파운드의 체중을 가진 「샹송의 여왕」에디트·삐아프의 노래가 왜 피를 토하듯한 절규로 우리의 가슴을 헤집는가를 느끼려면 「Piaf, the Early Years」를 보면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일생을 노래로 시작 노래로 막을 내린 삐아프의 레코드는 그녀가 사망한지 20년후인 지난해만도 70여만장이 팔렸으며 눈과 손과 몸으로 흐느끼듯 부르짖는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를 허무에 잠기게 한다. 이영화는 그녀의 버림받은 출생부터 21세때 파리의 ABC뮤직홀에 데뷰할 때까지를 그리고 있다.

삐아프(참새라는 뜻)의 본명은 에디트·가시옹(브리짓·아리엘). 그녀는 파리의 빈민가 거리에서 약물 중독자인 어머니와 거리의 곡예사이며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 세살때까지 눈이 멀었으나 창녀의 기도로 광명을 되찾은 삐아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동전 몇닢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 이복여동생 시몬(빠스칼·크리스토프)과 함께 본격적인 거리의 가수로 나선다.

17세때 배달부와 결혼한 그녀는 아기를 낳으나 아기마저 죽고 다시 거리를 전전. 나이트클럽의 주인이자 후에 그의 후원자가 된 루이·르쁠레(기·프레장)를 만나면서 그녀의 생은 방향을 튼다. 그녀의 생은 신을 원망할 정도로 처참한 것의 연속이어서 르쁠레마저 살해당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 삐아프에게 나타난 구원자는 작곡가 레이몽·아소(삐에르·베르니에). 그녀의 연인이자 후원인이 된 아소의 훈련과 헌신으로 마침내 삐아프는 두번째 생의 계기가 된 ABC콘서트홀 무대에 서게 된다.

삐아프는 절망을 분신으로 안고 살면서도 그절망을 노래로 불살라 버린 전율스런 여인이었다. 흰 얼굴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노래와 남자와(그중에는 이브·몽땅도 있었다) 약물과 자살기도로 생이 무거워 아틀라스처럼 떠받쳐들고 살던 그녀의 임종의 말은 『나는 이제 죽을 수 있다』였다고 한다. 이 영화는 삐아프의 실제 목소리가 부르는 「장미빛 인생」, 「빠담 빠담」등 우리의 귀에도 익은 샹송과 함께 그녀의 몸부림의 일생을 감동적으로 그리긴 했으나 그녀의 생의 전반기를 그 「처참함」에 조명을 너무 비춰 예술성이 다소 빛을 잃은 것이 아쉬움이다. 감독 기·까사릴. 윌셔 화인아츠서.

◆삐아프는 생이 겨워 두손으로 떠받쳐들고 노래를 불렀다. 왼쪽은 실제의 삐아프. 오른쪽은 삐아프역의 브리짓·아리엘.

교민동정

◆임주철·설동란(한밭식품 대표)=5년동안 경영하던 식품점을 팔기로 작정했었으나, 다시 계속 운영키로 했다. 교민들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착각(혼란)을 주어 대단히 죄송하고, 더욱 성원을 부탁한다고.

YMCA이사회 합창단후원권등

토론토한인 YMCA(이사장 전택균)는 오는 30일(목) 하오6시30분 한인Y회관(931 College St.)이사실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날 다루어질 안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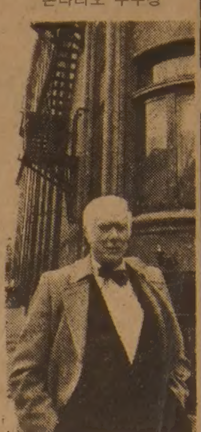
1)여름프로그램 결과보고

2)와이즈멘세계대회 참가보고

3)Y프로그램 토의-Y합창단이사회·신년교례회·성탄만찬회·와이즈멘클럽활동·한글학교·토요예능교실·영어교실등

새 이주자를 위한 안내②
토론토의 이모저모

◆윌리암·데이비스 온타리오 주수상



◆피에르·버튼

▲유력인사

◉윌리엄·그렌빌·데이비스(53): 11년간이나 온타리오주수상을 역임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파이프를 즐겨 피우며, 이웃 아저씨와도 같은 인자한 모습. 과거 문교장관을 지낸 그는 여론을 통일시키는데 명수이며, 연설문작성에도 대단한 솜씨를 발휘한다. 취미는 축구, 크리비지놀음을 즐기고 애용하는 술과 음료수는 럼(Rum)주와 코카콜라이다.

◉ 에르·버톤(62): 작가, 언론인, 라디오해설자, TV토론자, TV호스트등 다재다능한 인물. 토론토·스타지에 해설·비평기사 등 많은 글을 쓴 공로로 전국신문상을 수상한 것외에 ACTRA상, 고든·싱클레어상을 받았으며, 또한 스티븐·리코커·유모어·메달과 논·픽숀으로 총독상의 획득했다.

그의 베스트·셀러작품중에는 1)The Comfortable Pew, The Last Spilk, Klondike, Hollywood's Canada, The Dionne Years : A Thirties Melodrama, Flames Across the Border: 1813–14 등이 있다.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모두 이름이 아버지와 같이 P로 시작된다.

◉고든·싱클레어(82): 작가, 언론인, 라디오해설자(CFRB), TV 토론자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만장자, 세계대공황때 세계각국을 돌며 순회 취재, 토론토·스타지에 특별기고해 일약 명사가 되었다.

성미가 급하지만 남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며, 예리한 통찰력에 일에 파묻혀사는 인물. 미국인(The Americans)이라는 프로를 방송, 미국 적십자를 위해 수십만달러를 모금함으로써 미국내에서는 영웅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외에는 그는 1938년에 캐나다 독자적 TV방송을 시작했다.

◉존·나피어·터너(53): 집권당인 자유당원으로 수상직을 노리는 미남형의 인물. 53년전 영국에서 태어나 오타와와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RHODES 장학생으로 옥스포드대학, 파리대학등에서 수학한 터너씨는 소비자및 기업문제 장관, 법무차관, 법무장관및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의회에서 물러리 서는 것에 식상한 그는 1976년 의원직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전업, 스카브로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인 게일스·맥크레·킬고 여사와의 사이에 3남1녀를 두고 있다.

◉폴·빅터·갓프리: 메이저·리그를 토론토로 끌어오는데 중추적인 역활을한야구광인 그는 73년부터 계속 메트로시의회(Metro Council)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곱슬머리에 괄괄하고 다혈질인 그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서도 신문에 자기 사진이 나기를 좋아한다. 앞가슴에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을 빼놓고는 인테리같이 보인다. 라스베가스에서 카드놀이를 즐기는 일면도 갖고 있다.

◉마가렛·에트우드 : 다작 시인겸 소설가, 캐나다 문단의 기둥으로 F.J.프랏트 메달, 웨스턴·온타리오 대학교 총장메달 및 총독상의 수상자.

◉케네스·톰슨 : 신문사, 북해오일,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심슨스(Simpson's), 베이백화점(The Bay)등 다방면의 업체를 소유한 기업인. 런던의 더·타임스와 선데이·타임스를 루퍼트·머독씨에게 팔아넘긴 그는 지금 캐나다에는 전국지인 글로브·엔드·메일지를 소유하고있다. 전설적인 신문왕 로이·톰슨경의 아들로 고자세에 남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수다스럽고 옷차림이 좀 단정하지 못하다. 나이는 59세.

◉콘라드·브랙 : 나이 38세로 도미니온·스토아, 스텐다드방송등 여러개의 유명기업체를 거느리는 기업그룹을 인수한 신동에 가까운 입지적인 인물. 크로켓놀이를 즐긴다.

◉카렌·케인 :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미모의 발레리나로 캐나다국립발레단 소속. 한때 6백만불의 사나이 리·메이저스와 염문이 나돌았던 그녀는 올해나이 31세. 나이에 비해 아직도 늙은 빛이 보이지 않고있다.

◉에드윈·머비쉬 : 미국에서 탄생, 9살에 토론토로 이주해온 그는 67세로 기업가, 식당경영가, 흥행사, 사교댄사로 이름을 날리고있다. 최근 런던의 올드·비을 123만불주고 구입. 원기왕성하나 비교적 말이없이 조용한 그는 로얄·알랙산드라극장, 에드스·디스카운터상점등 블루어거리에서 요란한 불빛을 달고있는 소 백화점 어네스트·에드의 주인이다. 계속

〈생활정보〉

노년의 후생문제
—물품세·생활비 보조금등—

온타리오주정부가 매년 만65세 이상의 노년들에게 지불하는 재산세 보조금(도시세금 학교및 물품소비세, 난방비등)은 가구당 최고 $500까지로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상반기(1월-6월)에 반액인 $250를 지불하고, 하반기(7월-12월)에 $250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년들에게는 신청서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되며, 지난 9월14일까지 신청서를 못받은 유자격자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여권, 영주권등)를 지참하고, 77 Bloor St. W.의 건물 10층 수입성 사무실로 찾아가 안내원에게 문의하면 즉석에서 면접후 신청서류를 작성하며, 훗날 청구서용지를 우송해 주고 그 신청서용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우송하면 오는 11월 초순경 수표가 지급된다.

물품세 보조금 $50는 오는 12월3일에 역시 수표로 지급된다.

만65세가 되고, 이민온지 만 5년이면 생활비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의료혜택이 무료이고,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약품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그외에 시력이 좋지 못한 분들은 $100까지의 안경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블루어안경상사(대표 구진모)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양인 안과의사의 검안진단도 OHIP(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검안용지를 가지고 거주지의 생활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관청에 가서 안경구입 용지를 얻어 그것을 안경점에 가지고 가면 된다.

이와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캐나다가 으뜸이 된다고 직접 와서 본 이들은 말하고 있다.

기타 노년문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토론토 한국노년회(755-8079)로 전화연락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전 노년회이사
김준순씨제공

꽁뜨 이민도시 III

서 만 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P씨는 길게 한 모금 빨아본다. 그리곤 소파에 등을 깊숙이 묻고 나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내다본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하니 가까운 중국식당에 가서 요기라도 할까 생각하다 금세 지워버린다.

이곳 R호텔은 토론토에서도 전통있고,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온갖 시설이 자못 휘황찬란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있는 사람들이라,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P씨에게는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곳이다.

지나가던 벨보이가 아는 척을 한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보니 호텔에서 일하는 웨이터, 벨보이는 물론 여러사람에게 정보를 받는 댓가로 수수료를 치르다보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다.

주로 일인을 상대로 하는 P씨는 가끔 교포상인에게 왜 우리가게에 손님을 끌고 오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고도 있지만, 아니 어떤 때는 한국사람끼리 그러지 말자고 험악해질 때도 있었지만 P씨는 교포상회로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일인만 해도 그들의 상품 구입에 대한 식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고급품을 찾는다. 피에르니 크리스천 디올, 지방시 같은 것은 구닥다리라고 찾지도 않고, 웬만한 프랑스 제품이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포상회로 끌고 갔다가는 그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함을 이해해 주지를 않는다.

식당만해도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즐기는 그들에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한인식당에 소개를 시킬 수가 없다.

"Excuese me! Do you Have a Quarter?"

얼른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동양계 여자가 서서 25센트를 구한다.

P씨가 앉은 소파옆에 공중전화가 있어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마 25센트가 부족한 때문이다.

P씨는 두말 않고 25센트를 건네준다.

"Thank you, I'll pay back."

전화를 거는 그녀가 한국인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낀다. "아마 그녀는 나를 일인이나 중국인으로 본 모양인가?"하고 그녀를 주시한다.

한참만에 통화를 끝낸 그녀가 돌아왔다.

P씨는 25센트는 돌째치고 우선 그녀에게 물었다. (영어로)

"한국분이 아니십니까?"

"아닌데요."

"아무래도 한국분 같아요. 제 눈이 보통눈이 아닌데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잠시 멈칫하던 그녀가 대답한다.

"네, 한국사람인데요. 2세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가게에서 잔돈 바꾸어 갖다 드리겠어요."

"아니, 괜찮읍니다. 그냥 가십시오."

멀어져 가는 그녀를 보고 P씨는

"망할년, 한국사람 2세면 한국인 아냐? 뉘집 딸인지 싹수가 노랗구나…." 하고 욕을 뱉아버렸다.

한참후에 손님을 맞은 P씨는 그를 데리고 호텔 라운지로 갔다. 간단한 칵테일을 한후 여러가지 사업 이야기를 하던중 그가 앉은 앞쪽으로 아까 그녀가 웬 늙은 서양인하고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까처럼 P씨 머리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다.

설마!

그와마저 얘기를 끝낸 P씨는 나가면서 그녀 곁을 일부러 지나쳤다. 그리곤 "야!"하고 불렀다. 얼떨결에 "야!"하고 불림을 받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예."라고 한국말로 대답을 해 버렸다.

"이리 좀 따라와, 잠깐 얘기할 게 있어."

두말 않고 따라온 그녀에게 P씨는 다짜고짜 묻는다.

"몇살이야?"

"21살예요."

"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어?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

"예."

"그럼 가 봐."

말없이 돌아서는 그녀를 보고 P씨는

"예이 쌍! 오늘은 어디가서 술이나 먹어야 겠군."하며 급히 라운지를 빠져 나온다.

(문협회원)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인삼, 생로얄제리→다량확보!

보약의 제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Nut 일체 ● 중풍 ● 고혈압
● 인삼 ● 녹용 ● 심장병 ● 부인병
● 웅담 ● 사향 ● 간장병 ● 양기부족
● 산삼 ● 비만증 ● 위장병
●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대표 조 지 섭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루마니아 스파이 망명

반체제인사 살해밀명…파리잠입

2명의 반체제인사를 살해하라는 밀령을 받고 파리에 파견됐던 한 루마니아 비밀요원이 사상을 전향, 현재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의 대령으로 알려진 이 비밀요원은 현재 파리에서 살고 있는 2명의 루마니아 반체제인사 파울·고마와 비르질·타나세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약 6개월전 프랑스에 왔으나 프랑스에 귀순, 프랑스 정보기관과 접촉하면서 은밀하게 그의 변절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극을 연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취소하게 된 것도 이같은 위장작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베르나르·포레 기자의 보도내용보다 더욱 자세한 사건내막은 31일 암살대상이었던 타나세및 고마와, 살해밀령을 받고 파리에 잠입했다가 변절한 「미스터 Z」이라고만 알려진 루마니아 비밀요원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

Z는 일찌기 프랑스에 잠입, 8년동안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여러가지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수행했다고 폭로했다.

1945년생인 타나세는 유명한 소설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는 단편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1977년 프랑스에 이민와 1979년 프랑스시민이 되었다. 또한 고마는 60년대에 루마니아에서 시인으로 활약한 사람으로 역시 프랑스에 와 현재까지 20년이상 살고 있다.

타나세는 금년에 프랑스잡지 〈악투엘〉에 실린 한 기고문을 통해 차우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난, 차우세스쿠를 『차우세스쿠1세, 공산주의 왕』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고마는 「죽음의 개들」이라는 한 저서에서 차우세스쿠체제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고문해 왔다고 비난했다.

루마니아 비밀요원인 Z는 지난 3월말이나 4월초 프랑스에 도착한 것이 확실하다. 그후 Z는 프랑스정보기관을 찾아가 고마를 독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프랑스에 왔다고 자수했다는 것. Z는 또 타나세는 납치·암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Z의 고마 위장암살 계획은 프랑스비밀요원들의 연출에 따라 지난 4월 한 칵텔파티 석상에서 실행됐다. Z는 다른 루마니아비밀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볼펜 모양으로 생긴 유리병에 들어있는 두알의 독약을 고마의 잔에 떨어뜨렸으며, 술잔을 고마에게 건네는 순간 한 프랑스비밀요원이 이를 쳐 지, 술잔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로써 루마니아비밀요원들에겐 Z가 고마암살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고마 위장암살극이 연출된 약 3주일뒤인 지난 5월20일엔 타나세 납치극이 실행됐다. 아파트 근처 길거리에서 납치된 타나세는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실려 브리타니에 있는 한 호텔로 옮겨졌다. 그러자 이 위장납치극은 프랑스신문에 대서특필됐으며, 사전에 납치계획을 알고 있던 타나세의 부인은 며칠뒤 수사기관에 출두, 남편 실종신고를 했던 것.

한편 Z는 프랑스정보기관과의 밀약에 따라 가족들을 국외로 탈출시키기 위해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시티로 돌아갔다.

Z는 고마암살은 실패했지만 타나세 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돼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메달까지 받았으나 8월중순 부인과 자녀들을 국외로 탈출시킨 후 1주일뒤 자기도 프랑스로 와 망명했다는 것이다.

▲프랑스로 망명한 루마니아 작가 비르길·타나세(왼편)가 전향한 루마니아 비밀요원 「미스터 Z」(오른편)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Z는 타나세와 또 다른 루마니아 작가 암살밀령을 띠고 왔다가 전향한 것이다. 〈파리〉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4>

金聖鍾작

어떤 殺人 ㉑

毛世의 최후 발작에 그녀는 칼을 뽑아…

문자도 두봉도 모세(毛世)의 몸짓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 마침내 찻잔속의 코피를 죽 들이켰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1초…2초…3초…4초…5초…

『어떻게 하겠어?』

모세가 턱을 추켜들고 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손을 들어 가슴을 싸안으면서 벌떡 일어섰다. 눈을 부릅뜨면서 입을 크게 벌린다. 오른손으로 문자를 가리킨다.

『네가 나를…』

오누이도 따라 일어섰다.

모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가 않았다. 눈을 뒤집어 까고 무섭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악!』

다시 비명을 지르며 머리로 탁자를 쿵하고 받는다.

문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주춤주춤 물러섰다. 이건 마취제가 아니다! 독약이다! 그녀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부릅뜬채 모세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빠! 어떡하죠?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아요?』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는 무서운 눈으로 누이를 쏘아보았다.

『전 마취제인 줄 알고 왔어요!』

『이미 늦었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 그대로 내버려둬!』

그는 냉혹하게 소리쳤다.

모세는 탁자를 끌어안고 신음하다가 갑자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탁자가 넘어지고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는 거품을 품으면서 카페트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꼭 맹수가 몸부림치는 것같았다. 설탕스가 벗겨져 부서졌다.

문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두봉은 의외로 침착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朴男 그림

모세가 몸을 번떡 일으켰다. 그리고 두봉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건장한 몸이 두봉을 덮쳤다. 갑자기 기습을 받은 두봉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모세의 몸에 짓눌린 그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만 잘 되지가 않았다. 모세는 단말마의 힘으로 그를 내려누르고 있었다.

『문자야! 뭐 하고있니?』

오빠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그제야 문자는 정신이 퍼뜩 들었다. 그녀는 엉겁결에 칼을 뽑아들었다. 그저께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재크나이프였다. 그녀는 날을 폈다.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넓적한 몸뚱이를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맹수가 오빠를 물어뜯어 죽이려한다고 생각했다. 두 손으로 칼을 움켜쥐고 몸뚱이를 향해 힘껏 내려찍었다. 생각보다는 아주 쉽게 손잡이 부분까지 쑥들어갔다.

모세는 꿈틀했다. 그리고 심하게 경련하면서 몸을 뒤틀었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자 두봉은 그를 밀어내고 몸을 뺐다.

모세는 엎어진채 꿈틀거리다가 조금씩조금씩 움직임을 멈추어갔다. 맨 마지막에는 크게 한번 경련했다. 그러고나서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다. 죽은 것이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미국은 credit(신용)사회이다.

신용창출의 방법은 간단하다. 쉬운 예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이 있더라도 할부로 사서 매달 정해진 날에 지불하게 되면 좋은 credit을 갖게 된다.

또한 한국과 다른점이 있다면 직장에서 급료를 받을때도 현금이 아닌 check(수표)을 받기 때문에 받은 check을 은행에 입금시켜 은행에서 발행하는 checkbook과 credit만 가지고 다니면 현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한국인 여행자가 100불짜리를 내놓으면 상점에서 놀라운 표정을 짓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대부분 현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낸 불량배들이 한국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거스름돈이 필요한 경우 상점에 들어가서 20불짜리를 내놓으면서 「20불짜리를 잔돈으로 좀 바꾸어 주시겠어요?」라고 하면 된다. 이럴때는 「큰돈을 잔돈으로 바꾸다」는 뜻을 지닌 동사 break를 사용해서 Can you break a twenty doller bill? 또는 Can you break a twenty?라고 한다.

single은 「독신」이란 뜻도 있지만 화폐단위로서 1불짜리를 말하며, 은행에 가서 teller(금전출납계)에게 10불짜리를 내놓으며 Ten singles, please. 라고 하면 「1불짜리 10장으로 바꾸어 주시오」라는 말이다.

A : May I help you, sir?
B : I want to buy this magazine.
A : That'll be seventy five cents, sir.
B : Can you break a twenty dollar bill?
A : Sure, if you don't mind getting a lot of singles.
B : That's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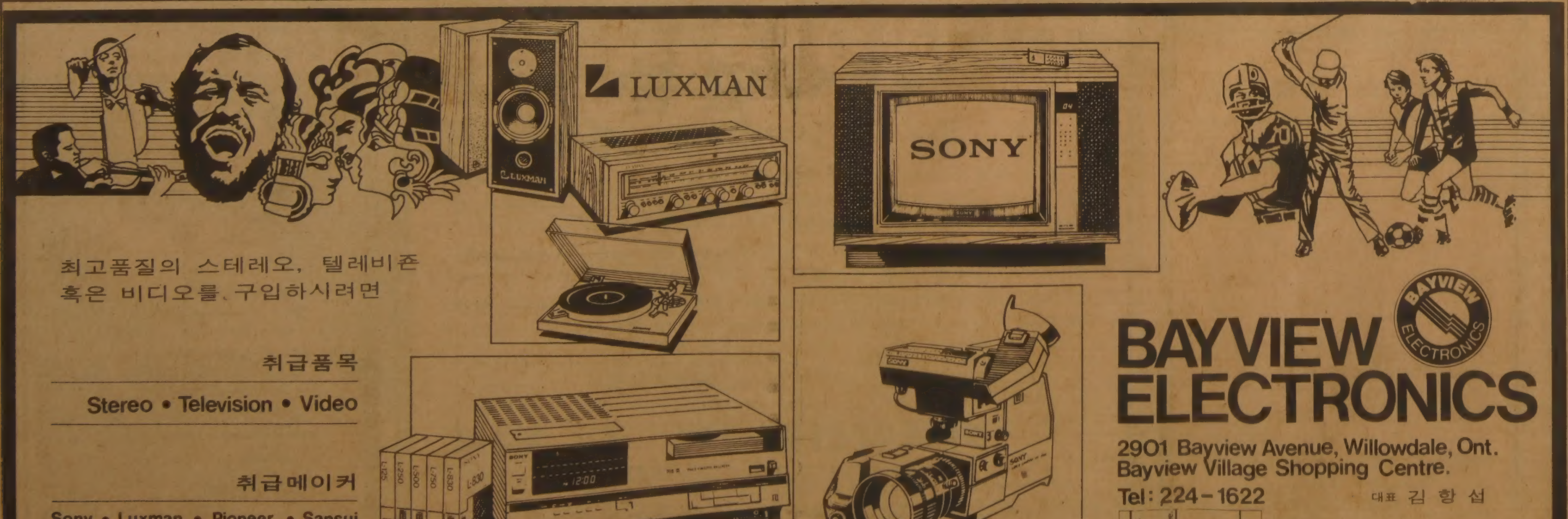
A : 무얼 찾으세요, 손님?
B : 이 잡지를 사고 싶은데요.
A : 75센트입니다.
B : 20달러짜리 뿐인데 잔돈으로 거슬러 주시겠어요?
A : 물론이죠. 1불짜리 여러개로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B : 괜찮습니다.

If you don't mind: 꺼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면.
Ex) If you don't mind, I'd like to smoke a cigarette here.(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담배를 좀 피우고 싶은데요.)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끝없는 터널… 世界大不況

對策세우려해도 뾰족한 解決策이 없다

세계불황이 장기화、마침내「대불황」의 양상을 보이고있다。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는 2년째인 75년에는「바닥」을 확인、다시 회복국면에 들어가 78년에는 세계경제가 피크를 이루었으나 이번불황은 이미 4년째 들어섰지만「바닥」이 보이지 않고있다。「불황의 타격은 체질이 나쁜곳으로부터 표면화한다」는 정설대로 우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지불불능국」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대불황의 심각도를 반영、실질파산국이 속출하고있다。멕시코의 예를 들것까지는 없지만 차관의 변제를 되풀이 연기하지않을수 없는 나라가 급증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의 채무잔고는 81년말현재 5천2백40억달러。10년전인 71년의 8백70억달러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었다。차관이 늘어나면 변제도 급증하지않으면 안된다。특히 미국의 고금리정책때문에 원금증가보다도 더욱 빠른속도로 금리지불이 증가하고있다。71년에는 개도국의 연간변제액이 원리금합계 1백9억달러였다。원금이 76억、이자가 33억달러였다。81년의 변제액은 1천1백17억달러、원금이 6백52억、이자가 4백65억달러였다。이 10년간 변제액이 약10배、금리변제액은 14배나 늘었다。이자분기 변제액의 42.7%나된다。

차관변제가 이정도로 늘어나면 변제를위한 차관이 필요해진다。엄밀하게 말하자면 차관의 금리분은 무역수지의 흑자분으로 지불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무역에서도 이미적자를 보아 원리금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파산반보직전까지 간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줄어들고있다。이에따라 금융불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있다。그래서 채무불이행국、IMF및 은행 3자간에 협의가 벌어져 채무변제의 일정과조건을 조정하고있다。

제1차 오일쇼크후의 불황과 이번 불황의 차이는「기관차적역할을 하는」나라의 유무이다。1차 오일쇼크이후의 경제 회복에는 훌륭하게 기관차역할을 하는 나라가있었다。예를들면 미국 영국 서독 일본의 4개선진국은 세계경제의 회복과정에서 기관차적역할을했다。네나라 모두 광공업생산지수는 75년이 최저였고 일본을제외하면 79년이 피크를 이루었다。발걸음을 맞춘 회복이었다。

이때 4개국의경제정책은 상호보완적이었다。서독과 일본은 오일쇼크이후 인플레를 싫어했고 미국과 영국은 실업사태를 두려워했다。

2차대전이후 초인플레를 경험한 일본과 서독은 긴축정책을 견지했다。제조업의 고용수준은 일본이 73년의 106에서 79년에는 94로、서독은 110에서 97로 급락했다。(75년 100을기준)

미국은 100에서 116(서비스업포함) 영국은 100에서 101이 되었다。

한편 미·영양국은 확대기조를 유지했다。수출하는 나라、수입하는 나라의 역할 분담이 확연했다。

그런데 이번 불황에서는 이역할분담의 구조가 변해버렸다。선두를 달린것이 영국의 대처정권。대처정권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려는 생각이었다。긴축정책을 강행하면서 실업이 생겨도 어느정도 모른체하며 경제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있다。

영국의 이같은 방법을 미국의 레이건정권도 배웠다。적은 정부。실업보다 인플레 퇴치등 어느것이나 대처가 행한 노선이다。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의 안정정책이 이번의 불황을 보다 심각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거기다 일본·서독도 기본적으로 긴축정책을 취했다。

일본의 경우는 각국의 페이스보다 2템포정도 늦었다。

정말 각국정책은 각론으로서는 정답이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에 대해서 對症療法을 계속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않는다。근본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이 좋다。뿐만아니라 이 각론의 정답도 총론에서는 큰손해를 가져왔다。연기자가 모두 같은 역할을 해서는 연극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물건을 사지않으면 일본도 서독도 물건을 생산할 이가 없다。당연히 원재료의 市況은 떨어져 1차産品國의 수입은 생각대로 늘지않는다。개도국은 차관을 갚고싶어도 갚을수 없는 처지가 되고만다。

앞으로도 4나라정책의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을것같다。불황이 어디서 끝날것인지 전망이 서지않기때문이다。

국제金融파국 우선 막아야

따라서 당면타결책은 국제금융불안에 어떻게 대응할까하는문제로 집약된다。IMF및세계은행총회에서도 채무불이행국에대한당면구제책이검토되었지만신통한해답을얻어내지못했다。

여기서 신용질서가 무너지면 공황상태가 꼭오고만다。각국이 협력해서 그같은파국만은회피해야한다。

금융파국만이라도 해결하려면 조정인플레제를 택한다든지 차관원리금의 상환유예혹은이자탕감을해주는 방법밖에없다고들말한다。

물론 어느방법도 비현실적이다。인플레에의해 차관은 줄어들지만 인플레의 부담은 약자와 물건을 갖지않은사람에게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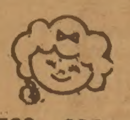
그렇다고 차관상환액을 깎아 주는것도 무리다。세계의 대은행들이 차례차례 도산해버릴테니까。무언가 대책을 취하지않으면 안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금융파국이 세계의 대불황으로 번져가면서 선진국의 기업도산도 늘어가고있다。미국의 82년도산건수는 2만을 넘었다。75년에도 불과 1만1천4백건이었다。대형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있다。

지난 2월에는 레이카항공(英)、데로리안(英)、4월에는 AM인터내셔널(美)、위크스·인터내셔널(美)、5월에는 브래니프·인터내셔널(美)、7월에는 드라이스·데일(美)、뉴코프에너지(美)、8월에는 로지아노(伊)、TOS인더스트리스(美)、안브론버드월(美)、AEG텔레푼켄(西獨)등 대형기업이 도산했다。

세계경기가 침체에서 회복되지않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것은 역시 석유값이다。석유값은 세계경기에 連動하고있다。즉 불황때에는 오르지않지만 경기가 회복돼 호황이 되면 호황에 찬물을 끼얹듯 치솟는다。

정치적요인보다도 역시 경제원칙에 따른것이기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석유값은 당연히 오를것이다。더이상 OPEC의 석유를 쓰지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되지않는한 이문제는 남는다。【外誌에서】


533-2361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學群 위장居住 근절

정부、高校배정 不條理 단속

假住居제공·父兄처벌

서울汝矣島·永東등 올해轉入者 모두조사

정부는 21일 서울 釜山 大邱등 대도시의 중학졸업예정자들이 이른바 신흥 명문고교가 있는 학군지역으로 주소지를 위장전입、부정입학하는 사례를 막기위해「가거주(假居住)에의한 고등학교배정부조리 근절대책」을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배정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계도를 통한예방▲배정기준일전 단속▲사후단속등 3단계로 나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金聖基)는 이날 하오 내무 문교 치안본부 서울시 시경등 관계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단속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됐을경우에는 학생을 실거주지로 배정케하고、학교 배정후 적발됐을때에는 학교배정의 취소는 물론 학부모와 가거주지를 제공한사람을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동시에 소속장에의 통보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키로했다。

또 가거주사실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밝혀지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근절대책은 최근 대학합격률이 높은 이른바 신흥명문고교입학을위해 일부 중학교졸업예정자들이 대거 汝矣島 永東등지의 학군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부정배정을 준비하고있다는 판단에따라 이뤄진것이다。

근절대책에 의하면 효과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펴기위해 각지역의 교위·교육구청·구청·경찰서마다 따로 신고창구를 설치하며 22일부터 이달말까지 해당지역구청장 책임하에 금년 1월이후 전입한 모든세대중 중학교3학년을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확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오는10월10일부터는 일주일간 동별로 경찰관·교사·동직원등 3명의 합동단속활동조를 편성、단속한다。

◇蠻行이 남긴것 적십자및 사회봉사요원들이 20일 지난주 발생한 집단학살사건의 현장인 베이루트의 사브라팔레스타인 수용소에서 희생자의 수를 세고있다。【베이루트20日 AP電=聯合】

"3천2백명 虐殺"

아라파트會見 이特攻隊 病院서도 만행

【워싱턴·파리 AP 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20일 레바논정부의 베이루트통제와 치안회복을 돕기위해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美해병대를 재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하오 5시(한국시간 21일새벽6시) 전국방송연설을 통해 재파견되는 美해병대가「제한된 기간동안」레바논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기간이 어느정도가 될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테랑 프랑스대통령도 레이건대통령과 같은시각에 전국TV연설을통해 프랑스軍을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레바논에 재파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탈리아외무성도 성명을 발표、레바논정부의 요청에따라 평화유지군을 재조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다(사우디)=聯合】지난주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와 병원에서 벌어진 대학살극으로 모두 3천2백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 20일 주장했다。

지난6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전격 침공한이래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위해 제다에 도착한 아라파트의장은 그러나 이스라엘軍 불도저들이 시체를 땅속에 매장시키기 위해 밀어붙였기때문에 정확한 사망자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AP=聯合】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20일 이스라엘 보병특공대가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 무차별학살만행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아라파트의장은 이날 프랑스의 르몽드紙와의 회견에서 그같이 비난하고 미국도 예정기일보다 10일정도 일찍 西베이루트로부터 美해병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이번 대학살사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 탁구·야구 制覇선수 31명敍勳

全斗煥대통령은 21일낮 청와대에서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야구선수단과 제2회 서울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우승한 탁구선수단의 임원、선수등 36명을 접견하고 이중 31명에게 체육훈장등을 주었다。

金총리 任命동의 국회、鄭감사원장도 可決

국회본회의는 21일하오 金相浹국무총리서리와 鄭喜澤감사원장 서리에대한 임명동의안을 可決했다。

이날 無記名 비밀투표에서 金총리서리는 在席2백61명중 可2백25、否28、기권8표로、鄭감사원장서리는 在席2백58명중 可2백25、否27、기권4、無效2표로 각각 국회의 任命同意를 받았다。

본회의는 또 이번정기국회 會期를 오는 12월18일까지 90일간으로 결정하고 10조5천1백7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다룰豫算決算特別委구성에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22、23일 이틀간본회의를 續開、韓日의원연맹등 18개 의원외교팀으로부터 활동보고를 들으며 24일부터 30일까지 各常委를 일제히 열고 정부로부터 업무現況보고를 들은뒤 각종 법률안등 계류案件심의에 착수한다。

社会漫評

가면 나오고…
나오면 가고…

植民지배 正當化

日、49년에 作成한 外交문서 공개

착취를 開發공헌표현

"經濟·사회등 近代化촉진케"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外務省은 19일 일본의再武裝문제에 관한 비밀협약등 샌프란시스코講和조약을 중심으로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2차대전후 7번째로 공개된 일본의 외교문서는『全面강화냐 단독강화냐』를 둘러싸고 일본의국론이 양분됐을 때의 외교행각을 담은 60권·1만6천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51년1월부터 2월에 걸쳐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덜레스美국무장관과 요시다·시게루(吉田茂)前수상과의 회담에서 제기됐던 일본의再軍備에 관한 비밀문서를 다룬 부분이다。

한국동란이 일어난 다음해에 열린 덜레스-요시다회담은 미국측의 재군비요청에 일본이 반대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조약 교섭이 한때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결국 요시다수상이 5만명의 보안대를 창설할것을 골자로 한 재군비에 관한 비밀문서를 덜레스장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결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재군비비밀문서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체 비공개키로 했었으나、30년만에 세상에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된것。

일본의 재군비계획을 위한 기본조치는 51년2월3일 오이소(大磯)에 있는 요시다수상의 지시에따라 극비리에 마련되어 덜레스에게 전달됐다。

51년1월29일부터 시작된 덜레스-요시다회담은 재군비를 에워싸고 대립、2월1일부터 일단 사무레벨회담으로 넘겨진 채 중단됐다。

미국측은 50년 한국동란직후 창설된 경찰예비대와는 별도로 지상군을 창설하고 국방부와같은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조직적방위태세를 갖출것을 일본에요청했다。

일본측은 그다음날인 2월2일 국방부성격을 띤 중앙기구설치에는 긍정적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예비대이외의 지상군창설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그대신 해상보안청、경찰예비대、출입국관리청등의 인원을 흡수하여 美日안보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측은 일본측의 이대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재군비를위한 지상군창설을 계속 요구했다。

요시다수상은 2월3일『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청등 5만명의 보안부대를 창설하고 국가치안성에 보안기록부를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군비계획서를 덜레스에게 제시하여 교착상태에 빠졌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교섭도 대단원을 맺게됐다』고 이외교문서는 기술하고있다。

그후요시다수상은舊일본군 고위장교들로 하여금재무장방안을 연구시켜 육상자위대 20만명、해상전력 20만톤에 이르는 방위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이것이 기초가되어 18만명에 이르는 일본자위대의 발족이 이뤄졌다。

이외교문서에서 또 일본은 전쟁배상을 모면하기위해 한국·대만·만주등 舊식민지통치는 착취가 아니라 일본의투자에의해 경제、사회、문화등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주장을 미국측에 제시했음이 드러났다。

1949년 12월3일자『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에서 일본정부는『한국 대만 樺太 만주등은 일본식민지의 일체권한을 포기하는것을 당연히 받아들일것이나 착취정치란 관점은 결코 인정할수없다。이곳은 일본이 점령할 당시 가장 미개한지역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향상과 근대화에 일본이 공헌한바 크다』고 강조하고『식민지 개발을위해 일본이 국고와 많은자금의 보조금을 지출했고 많은 민간투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외교문서는 과거 식민지가 국제법상 정당했으며 국제관례상 흔히 있는것으로 세계각국이 일본영토로 승인했기 때문에 전후 이 식민지통치에대한 징벌적 의미의 배상은 인정할수없다고 주장하는 한편대륙침략도 전쟁이 아닌사변이므로 전쟁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난뒤에도 일관해서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자위를위해 불가피했으며 식민지정책과 대륙침략이 불가피했던것이란 점을 주장하고 있다。

地平線

세종13년인 서기1431년에 세종대왕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효자·충신·열녀라 일컫는 사람들의 뛰어난 행실을 적은 삼강행실도를 펴내고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본받게했다。그림과 한문과 한글을 함께 곁들인 것이라 아녀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있도록 꾸며진 책이다。▼그러나 그 책속에서 볼 수있는 여성관계의 기술은 여성들의 희생만 강조되어 있을뿐、이른바 여권에대한 인식은 고려 밖의 일임을 누구나 쉽게 알수있다。조선왕조 5백년은 철저한 남권 지배사회요 여권이 개입할 여지란 조금도 없은데다 도리어「3종지도」가 미덕으로 여겨졌었다。▼물론 국사에 있어서 왕이 어리면 대왕대비가 수렴청정하는 경우는 있고 또 여염집에서도 여성으로서 보다는 모성으로서 존경받으며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하고는 있었다。하지만 사회적인 위치는 어디까지나「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으로 생각되어 왔었다。▼사실 개화기 이전까지 우리 여성들은 규방과 내정을 벗어나 자유로운 나들이를 할수가 없었다。더구나 외간남자와는 시선만 마주쳐도 안되는 것으로 외면법이 있을정도였다。만약 외간남자에게 손목이라도 한번 잡히면「순이 맞았다」하여 부정으로 되었으니 요즘의 여성풍속과 견주어 볼때 격세의 감이 새로울 따름이다。▼흔히들 광복후 구미의 문물이 밀어닥치면서 갑자기 강해진것은「양말과 여권」이라고한다。앞에 살핀 개화기 이전까지의 여권이 불모지를 이루었던 풍토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기 시작한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볼 시기가 된듯하다。당면한 여성문제의 현주소는 과연 무엇일까고。▼21일 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ICW」총회가 열려 32개국의 여성지도자 2백50여명과 국내 여류들이 참석、「여성과 국제개발전략」을 주제로 토의를 해가고있다。세계 최대의 여성단체인 ICW총회가 가입한지 22년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됐다는것 만으로도 국내 여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국제적인 비중을 함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오랜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급속히 밀려나면서 여러모로 전진화·다양화해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새시대에 상응한 가족형태나 그제도는 어떠해야 할것인지、폭넓고 거시적인 지혜를 모처럼의 이기회에 얻게되었으면 싶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Y토요학교
스쿨버스 운행안내

기간 : 10월2일(화)~12월11일(토)

운행코스 : 1) 오전9시~10시반 사이에 각 집앞에서 Pick up 한글학교에 데려옴.
2) 오후1시에 한글학교에서 Y취미 교실까지 데려옴.
3) 오후5시~6시반 사이에 집까지 데려다줌.
버스비 : $100 (10주간)
모집인원 : 선착순 약 12명
신청이나 문의 : YMCA MR. 김
☎ : 536-1166

※단풍관광 : 10월9일 오전8시YMCA 앞에서 출발.
오전8시30분 YOKDALE 경유, 오후7시30분 돌아옴.
관광 버스: $20
스쿨버스: $10

인사말씀

땀의 결실을 얻는 중추가 우리들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차제에 경애하는 교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의 가호와 아울러 주 안에서 평강하옵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소생은 뜻한바 있어 거북이선물센터(전 대표 이정석)를9월 20일자로 인수받아 현 상태위에 새로운 물품을 더욱 구비하여 교민 여러분들께 친절과 신용본위에서 봉사코자 하오니, 성원하여 주시옵고 끊임없는 하교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82년 9월 20일

거북이선물센터 대표 황은심

개업파티
82년9월25일(토) 하오4~9시
많은 교민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617 BLOOR ST. W. TOR. ☎ : 535-2143

교회창립제6주년기념
특별신앙사경회

본 미시사가 연합교회에서는 창립 제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앙사경회를 마련하고 교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강사 : 양희철
(뉴욕 Forist한인장로교회 시무)
시일 : 1982년 10월9일(토), 10일(일) 양일간
9일(토) : 오후7시30분
10일(일) : 새벽6시, 오후2시, 오후7시30분
장소 :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주소 : 2500 MIMOSA ROW · MISSI, ONT.
(HWY10 & HWY5 safewag shopping Mall 뒷줄)
☎ : 276-5163(교회)
☎ : 277-2394(사택)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교우일동

"온세계가 우리를 저주했는가…"

팔 난민촌 殺戮의 現場엔 온통 屍身썩는 냄새만…

◇無差別 刀戮劇 사람과 가축을 무차별 학살한 피비린내나는 사브라난민촌。3구의시체가 뒤엉켜 나딩굴고있는 앞쪽에 아랍產 말한필이 구유에 머리를박고 죽어있다。말엉덩이와 옆구리에는 칼자국이 뚜렷이 나있다。【AP】

"여기 아기들만 2백명묻혀" 울부짖는 女人들

○…비극의 대학살 현장인 사브라 샤틸라 두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는 참극 사흘째인 20일에도 수백具의 시체썩는 냄새로 온통 뒤덮여있었다。

아낙네들은 잃어버린 남편과 자식들의 시신을찾아 한없이 울부짖으며 이리저리헤매고있었고 방독면을 착용한 의용군들은 흩어진 사체들을 실어날랐다。

사브라수용소 한쪽 어귀에 있는 루드르·셰야묘지에서는 하루전 노동자들이 합동장례식이 치러질때까지 악취를막기위해 시신들에다 향수를뿌렸다。

일부 시체를 매장하기위해 이 묘지에 도착한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들은 온세계가 자신들을 저주한 것으로 생각했다。

아메리카대학에 다니는 한 팔레스타인학생(18)은『미국도 말했다시피 이번사건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고 절규했다。

살림이라는 이 학생은 이어『생각해 보십시오。모든사람이 한가지일에 이토록 똑같은 의견일치를 본적이 있었나요? 누가 이 사람들을이 꼴로 만들었습니까?』고 통곡했다。

방독면을 쓴 회교청년기구의 의용군들은 검자갈밭에 롱롱부어오른채 내팽개쳐져 있는 한아낙네와 그녀의 자녀들시체를운반하고있었다。

바로 그 옆에는 불도저에 의해 흙에 묻힌 건물잔해사이로 시신이 삐어져나와 악취를 풍기며 썩고있었다。

서베이루트의 거리에는 이날정오쯤 겁에질린나머지 두 난민수용소를 부랴부랴 빠져나온 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사드·하다드소령의 기독교민병대가 또다시 수용소에 나타날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들의 숫자는 남녀노소를 통틀어 수천명에 달했고 행렬가운데는 소용소를 감시하군 병사들도 끼어 있었다。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구원』을 외치며 수용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이때문에 남아있던 난민가족들은 저마다 밟짓들을 이용, 신속히 북쪽으로 북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팔레스타인난민촌학살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20일 살인자들이 칼을가지고 살육을 시작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돌이키면서 치를 떨었다。

『그들은 30대의 대형트럭을타고 산으로부터 내려왔읍니다』

57세의 야히아·하심·살라메씨는 학살의 순간을 되새겼다。

『소리를 내지않기위해 처음에는 칼로 죽였지요』

소리안나게 처음엔 칼로 죽여
男女老少불문 銃질…집도 爆破

그는 이번 참극이 앞서보도된것보다 하루 빠른 17일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날아침 살인자들이 들이닥쳐 무고한 난민들을 닥치는대로 찌르고 목을 벳으며 나중에는 샤틸라난민수용소 외곽에 저격수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살됐읍니다』17일 하오가되자 군인들은 집에들어와 남녀노소를불문하고 총질을한다음집을다이너마이트로폭파시켜페허로만들었다。

다른목격자들은 야히아씨의 이같은 체험담을 뒷받침하면서 살육이 18일아침까지 계속됐다고 말했다。

야하아씨의 현인 모하메드씨(65)는 시체썩는 냄새를 막기위해 손수건으로 코를가리채 혀사하드의 시체앞에서 슬피울고 있었다。

섭씨32도의 작열하는 태양아래 시체들은 급속히 썩어가고 있었다。

적십자사대원들과 민방위대원들은 신원이 확인되지않은시체들을 한곳에 몰기위해 불도저로 커다란 무덤을 파고 있었다。

약1백m 떨어진 곳에서는 눈물로 뒤범벅이된 많은여인들이 2백명의 아기들이 그곳에 묻혀있다며 손가락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학살극이 끝난지 3일이지난 지금까지 모두 몇명이 죽음을 당했으며 누가 죽였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않고있다。

적십자사대원들은 해질녘까지 모두 1백20구의 시체를 발굴했다고 밝히고 다이너마이트폭발로 자갈더미로 화한 수용소 곳곳에 더많은 시체가 묻혀있을 것이라고밝혔다。

불도저 1대가 자갈더미로 변한 집 한채를 밀어내고 4구의 시체를 발굴했다。

한 노파는 들것에 뉘어져있는 죽은 젊은여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베이루트=外電】

美의 再派兵

이스라엘 制裁·레바논自立 지원
外國軍 철수完了까지 駐屯할듯

【워싱턴21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 미대통령은 대량학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레바논사태를 수습하기위해 강경한 조치중 하나를취했다。

派兵이란 레이건대통령에게있어 지금의 레바논사태수습,더나아가 중동평화방안수행을위해 필요한 것이긴하지만 1차때와 현저히 달라진 상황에 미군을 투입한다는점에서 위험부담도 크고 국내에서 반대에 부딪칠우려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파병이 지닌 여러측면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18일아침 대량학살의 보고를 받은 이후 잇달아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19일에는부시부통령을 비롯 국무 국방 백악관보좌관등이 참석하는 각료급회의를 긴급소집, 미군의 재파견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서도 20일하오5시에 가서야 발표했다。

지난1일 같은 TV를 통해 소위 새중동평화안을내놓으면서「이것이 중동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했던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불과3주만에 다시 미군의 파병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평화를 위한「첫발」이라고 되풀이 했다。

이것은 레이건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놓았던 중동평화방안이 그수행과정에 얼마나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가하는 점과 미국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중동의 오랜분쟁을 종식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미군 재파병을 두고 레이건대통령이 기왕에 발표한평화방안의 수행을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하는사람이 많다。

그것은 레바논의 주권회복, 국내안정을 선결요건으로 하는것이고 게마엘대통령당선자의 피살, 이를구실로 한 이스라엘군의 재진입, 대량학살은 그야말로 첫단계인 이문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것이었다는것。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레이건대통령의 발표에도 있듯이『레바논으로 하여금 혼자설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으로보아「제3의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파견되어있는 유엔군에게 이런역할을 기대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미군을 포함한 새로운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재투입이란 불가결한 조치』란 풀이다。

미국이 이같이 분명한 명답을 가지고도 재파병결정에 만2일간을 소비한것은 파병에따른 여건이 1차때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레바논사태자체가 대량학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피해위험이 크며 파병이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로운 충돌로 이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과정에서 소련을비롯, 미국의 중동이니셔티브에 적대적인세력들이 행동이나 지원도 고려에 넣지않을수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 이후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미국의 독주를 방관하는 자세까지보였던 소련이 최근 팔레스타인 측을 겨냥한 평화방안을 제시했고 대량학살의 책임을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까지 몰아붙이면서 美·蘇가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제재하자는 제의를 하는등 적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이런상황때문에 재파병에 임하는 미국의 결의, 어떤의미에서 긴장도는 전에 비할수없이 강경하다。

그것은 1차파병이 30일시한을 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주둔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레이건의 발표에서도 비쳤듯이 주둔시한이란 레바논의 주권이 전국의 질서유지에미칠수있는 시한이고 주권회복을위해 이스라엘 시리아등모든 외국군이 레바논땅에서완전히 철수하는 시한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에관련 워싱턴·포스트紙는 레이건이 끝내 레바논에서 외국군의 완전철수를 보고야말겠다는 결의에 차있다고 전했다。

이날 하오5시 TV로 전국에 방송되기 40분전까지 레이건대통령의 연설문은 다시 손질됐고 여기서 강조된 것도「외국군의 철수요구」라는 것이다。

또한 레이건대통령이 각료보좌관들과 이문제에관한 협의과정에서 강조했던 두가지 자세도 이스라엘의 배신에대한 격노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레바논은 외국군의 주둔없이 혼자 설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것이었다고 측근들은 전하고있다。

즉 레이건대통령은 이사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강한 인식에서 재파병을 최종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해병대의 레바논주둔시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외국군의 완전철수가 이뤄지는 시기로 일단 봐야 할것같다。

이 전번과 다른면이 있다면 시한문제와 함께 이번파병 완전철수에 응하지않았던 이스라엘의 태도변화를 들수있다。

이것은 대량학살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이에따른 국제적 비난은 물론 이스라엘국내 일각에서마저 일고있는 반발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이미 베이루트에서 일부 점령지역을 레바논군에 넘겨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아리

發 明

金昌悅 <編輯委員>

토머스·앨바·에디슨(1847～1931)。이 이름이 빠진 어린이 偉人傳 전집은 아마 없을줄 안다。

다음은 그런 어린이 도서에 빠짐없이 적혀있는 에디슨傳說중의 하나다。

80평생을 통하여 에디슨은 1천93건의 발명특허를 받았다。그중 첫번째 것이 1868년 10월11일자로된「특허제 90646호 投票記錄機」다。

발명품의 견본을 만든 21세의 에디슨은 워싱턴聯邦議會를 찾아 갔다。당시 17대 앤드류·존슨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政爭에 휘말렸던 議會꼴이 投票記錄機를 고안한 동기였으니, 그것은 당연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큰 실망을 안고 돌아섰다。그 경위를 어린이 偉人傳은 다음과 같은 議長의말로 설명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議會에서는 그 投票機를 쓸수가 없네。投票機를 쓰면 상당히 能率的이기는 하겠으나, 議會에서는 能率이 최고는아닐세。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多數決제도를 채택하고있네。그러나 多數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것은 아니야…그런 경우 少數사람들은 잘못된 議案을 표결하려할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어 될수 있는대로…표결을 하지않고 넘어가려 하거든。그런경우에는 자네의 발명품은 오히려 방해가 돼』

젊은 에디슨은 여기서 현실세상이 단순치않음을, 팔리지않는 발명품은 헛것임을 깨닫는다。사업가로서도 성공한발명가의 길이 이렇게해서 열린다。投票記錄機의 기술을 응용한 證券거래소의 時勢表示機가 그에게 목돈을 안겨주게 된다。

그때의 議長은 후에 부통령이 된 쉴러·콜팩스(1823～1885)다。그가 털터리 청년을 붙들고 長廣舌을 늘어놨다는데서, 조금 傳說的인 냄새가 나다 쉬기도 하지만, 어린적 由語로 된 偉人傳에서 이 대목을 읽던 감명은 지금도 선하다。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 문고를 뒤져보니, 책마다 同巧同曲의 얘기가 나와 있다。

이 말을 끄집어 내서, 어느 책이 어느 책을 땄다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傳說」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에디슨과 다른 교훈―政治敎育을 받고 있음을 지적 하고 싶다。

에디슨의 첫 발명품이 나온지 꼭 1백7년을 지나, 서울汝矣島에 동양제1, 전세계에서 미국 聯邦議事堂 다음 두번째 규모라는 議事堂이 섰다。그러나, 이 새 議事堂은 미국에도 없는 投票記錄機를 內藏하고 있으니, 세계제1일수도있다。그때돈 3천만원이 든 投票記錄機는, 새 議事堂을 지을 당시 이 땅을 지배했던 政治風潮의 한 단면일 수가 있다。적어도 에디슨傳說을 읽어보지 못한 어른이많았다는 얘기는 되겠다。

어제 金相浹총리의 국회인준과정을 텔리비전·뉴스로 시청한 사람들은 그「遺物」을 보았을터이다。議長席뒤 양편 벽면에 보이는 格子모양의 電光板이 그것이다。議員席 서랍속 스위치를 움직여, 의원들의 出缺과 투표의 可否를 나타낼수있는 장치다。

그러나 이 비싼장치는 한번도 쓰인적이 없다。조작에 돈이 드는것은 물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까 걱정스럽고, 기립 또는 擧手투표처럼 한黨의 결속을 과시하는 묘미가없다。게다가 지금국회법은 숫제 기계투표를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법을 고치지않는한, 앞으로도 이장치가 쓰일때는 없다。

덕분에, 女學士의 직장9席이 국회에 남아있다。그들 직함은 解決士아닌 表決士다。어제도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도움을받아, 總理를 인준하는 투표행렬을 섰다。非能率이라면 非能率이다。

20일 열린 올 정기국회는 1백60여건의 議案을 앞에 두고있다。이들을 회기중에 能率的으로 처리해야 한다지만, 국민이 바라는것은 그能率이상의 것이다。그事理는 에디슨傳說을 읽어본 어린이들도 안다。

영국의 윈스턴·처칠은 首相으로 있던 44년의 議會연설중 이런말을 남기고 있다。

『議會의 직무는 좋은 법률을 통과시키는것뿐 아니라, 나쁜 법률을 저지하는 것이란 사실도 기억해 두지않으면안된다』

西獨 次期首相 확실한 헬무트·콜

73년에 黨首…右翼의 主流
誠實한「西獨版지미·카터」

◇헬무트·콜基民당수。

헬무트·슈미트現수상의 뒤를 이어 次期독일수상으로 거의 확실시되고있는 헬무트·콜(52) 기민당(CDU)당수는 서독版 지미·카터로 불린다。

지방의회에서 주로 정치적경험을 쌓았고 성실한 인품에다 人和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적 섬품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및 국방전문가인 슈미트와는 달리 특별한 전문분야를 갖지못해 종종 수상감으로는 정치역량이 부족하다는 評을 받기도 한다。

콜당수는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정을 요리하는 政客型수상보다는 각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전체적국면을 관장하는 管理型수상이 될 확률이 높다。

73년 당시 야당이던 기민당당수가된 그는 독일수상이 되기위해 거의 10년이상을 끈질기게 기다려왔다。

기민당당수가 된뒤 그의 물급좌파정객들의 그늘에 가려 별 주목을 끌지 못해왔다。

76년 총선때는 슈미트와 대결에서 패배했고 자신의 선거구에서마저 낙선하는 非運을 맞아 거의 정치생명이 끝난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80년 총선때는 기민당당수이면서도 수상입후보자리를 기민당과 연합하고있는 기독교사회동맹(CSU)의 당수 슈트라우스에게 양보하기도했다。

콜은 기민당의 잇단 총선패배, 자신의낙선등 많은 정치적 역경을딛고 일어서면서 자신의 정치적역량을 키워왔다。

그는 자신이 독일의 오늘이 있게한 故아데나워수상에서 에르하르트로 이어지는 독일 우익정치산맥의 주류임을 자부해왔다。

그는 2차대전때 15세였다。현행 독일헌법은 총선을 거치지 않고도 하원선거만을 통해 수상을교체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하원의 의석분포는 총4백97석중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동맹연합이 2백26석, 사민당이 2백17석, 자민당이 53석이다。

콜은 수상이되기위해 53석 자민당의석중 23표만확보하면된다。

헬무트·콜은 자신이 수상이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3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는 총선이 실시될경우 기민당이 사민당을 50對33정도로 앞설것이라 점치고 있다。【李炳圭기자】

海外토픽

◇대처首相의 포즈 日本을 방문중인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20일도오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베풀어진 리셉션에서 日本의 전통적 씨름인 스모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은 선수권자요끄즈나(橫綱)인 지요노·후지。【東京20日UPI=聯合】

大統領저격 않겠다 ★힝클리 UPI通信에 편지

레이건대통령의 저격범 존·힝클리(27)는 최근 UPI통신에 보낸 편지에서『설혹 나를 유명하게 만들지라도 다시는 대통령을 저격하는일 같은것은 하지않겠다』고 다짐…。

힝클리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이상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현재 수용되어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할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피력。

힝클리는 이에앞서 UPI가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서를통해 자신이 최근「로리타」를 읽었고 TV의「초원의집」프로를 즐겨 시청하고 있으며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기도 한다고 고백。

그는 아직도 배우 조디·포스터양을 흠모하고 있기는하나『이같은 흠모의 정이 나를 정신이상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일종의 강박관념이 곧 정신이상과 같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워싱턴=UPI】

唯一한役割은 아내 ★그레이스 生前에 밝혀

최근 자동차운전도중 뇌일혈로 사망한 모나코의 故그레이스 왕비는 죽기전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은막으로의 복귀를 고려하고있다는 소문들을 일축하고 자신의 유일한 역할은 레이니에 국왕의 아내로서 존재하는일이라고 강조。

그레이스왕비는 선데이·피플지와 가진 회견에서 자녀들에 언급, 올해17세인 스테파니는 반항적이라는평을 듣고 있으나 아직 성장기에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것이라고 옹호하고 이미 이혼경력이있는 캐롤라인공주는 삶에 매우 열심이며 앨버트왕자는 생각이 깊은 철학가로서 유머감각이 매우 풍부하다고 평。【런던=UPI】

亞洲人의敵은 흡연 ★WHO亞洲지역회의 決議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야말로 WHO가 서기 2000년까지 달성하려는 인류보건목표의 가장큰 저해요인이라고 규정。

WHO의 아시아 회원국들은 최근 1주일간 지역회의를 갖고 아시아人의 건강증진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흡연이라면서 각국의 일치단결된 금연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대카=聯合】

"굿바이"로 廢刊辭 ★1백48년 歷史지닌 美紙

창간 1백4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버펄로시의 조간신문 쿠리어·익스프레스지가 지난3년간 누적된 2천4백만달러의 적자에 허덕이던끝에 19일『굿바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폐간。【버팔로(美뉴욕州)=UPI】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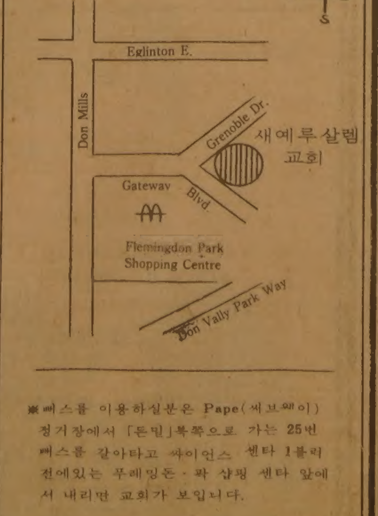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동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사회자입니다. 그 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빠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빠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부쩍는 不動産 法廷경매

流札농간…헐값에 날려

악질 競賣브로커들만 한몫

가옥과 대지등 부동산의 법정경매사건이 올들어 예년보다 30%선이 늘었다. 대부분 은행등 금융기관에 저당잡혔던 부동산들이 계속되는 경제불황등 여건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법의 강제집행에의해 해결되는 현상이 늘고있다.

그러나 경매때마다 경매브로커들만이 경매에 응하고있는데다 이들 경매브로커들이 서로 담합, 경매를 유찰시켜 값을 떨어뜨리는등 농간을부리고있어 채무자들이 헐값에 부동산을 날리고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 채권자들은 악의적으로 계속되는 유찰때문에 보통6개월이상 기다리는등 애를먹고있고 서민입주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저당권이 설정되기전에 주민등록이나 등기가된 입주자들만 보호하고 저당권이 설정된뒤에 전세를든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지않아 경매된 집에서 쫓겨나도 전세금을받지못해 법원에 진정하는 사례도 많다.

올들어 8월말현재 서울민사지법을 비롯한 동부·남부·북부지원등 4개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신청사건은 모두 6천2백2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천8백34건보다 28.7%나 늘어났다. 이중 임의경매사건이 3천7백50건으로 강제경매사건 2천4백72건보다 훨씬많다.

임의경매는 은행이나 채권자가 채무자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고 강제경매는 민사소송을통해 판결을받은경우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담보물처리를 의뢰하는것.

경매절차는 채권자가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오면 법원이 최저가격을 결정, 경매기일을 지정하고법원 게시판에 2주일간 공고한후 법정에서 집달관에의해 경매에 붙여진다. 경매과정에서는 1차례유찰될때마다 최저가격이 30%씩 깎인다. (대법원판례 구정에의거)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이 현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데다 1차경매는 대부분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유찰되게 마련이고 2、3차 경매에서 경락되는데 거의 헐값에 팔리게된다고 호소하고있다.

崔모씨의 경우 K회사에서 龍山區二村洞주택 33평을 담보로 4천만원을 빌어쓴후 이를 갚지못해 경매신청을당했는데 담보물감정가격은 3천2백만원. 그러나 지난1월 1차경매에서 유찰되어 30%저감비율에 따라 2천3백만원에 2차경매에 붙여졌고 다시유찰, 6월에 1천6백만원에 3차경매에 붙여져 1천8백만원에 팔렸다.

또 S주식회사로부터 鍾路區付岩洞대지 2백86평을 담보로 5천7백만원을 빌어쓴 Y모씨의경우는 감정가격이 7천7백만원이나 지난2월 1차경매에서 유찰되어 6월 5천3백97만원에 2차경매에 붙여졌다가 다시 3천7백78만원에 3차경매에 나왔다. 그러나 살사람이 안나서자 채권자인 S회사가 인수해버렸다.

이같은 경매실정에대해 법원관계자들은 분쟁이 있는부동산을 사기위해 법정에 나오는 일반수요자들이 거의없기때문에 경매전문가들이 싼값에 매수해 전매하는경우가 많다고 밝히고있다. 관계자들은 경매브로커들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들의 횡포를 방관할수밖에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들마저없으면 경매가 안돼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말하고있다.

이때문에 채무자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경매됐다고 법원에 수없이 항고하지만 모두 합법적인 절차는 진행됐기 때문에 기각당할수밖에 없다는것.

金龍澤판사(서울민사지법 1부)는 『경매사건의 증가는 전세입주자들이 전세금을 못받아 진정하는 사례가 늘고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저당권이 설정되기전에 이미 주민등록이된 전세자들만 보호를 받을수있고 저당권이 설정된뒤에 주민등록을 옮긴 전세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기때문에 전세입주자들은 반드시 등기열람을 통해 저당권설정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답변했다.

金판사는 일단 경매된부동산은 모두 헐값에 팔리게 되고 경매비용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경매진행중이라도 채무자들이 빨리 부동산을 처분해 갚는것이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부동산시가감정단계에서부터 장래의 전망등을 고려, 시가를 반영해주는 과학적인 감정평가제도가 먼저 확립돼야하고 브로커들을 배제하기위해서 은행이 매수해 사후에 매각하는등 정책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林來茂기자】

讀書、성적에 反映

초·중·고 圖書목록뒤 指導

문교부는 21일 초·중·고교별 독서지도용 도서목록을 작성,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독서결과를 일정비율 성적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교부는 이날 전국시도교위 독서지도 담당장학회의를 소집, 각급학교, 학년별, 교과별로 작성된 모두 2천8백58종 3천9백92권의 독서지도 도서목록을 배부하고 이번학기부터 독서지도의 결과를 성적에 일정비율 반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학교에서부터 독서풍토를 뿌리내리게 해 학생은 물론 교원·학부모의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것이다.

孔子탄강 紀念봉행

成均館서 秋季석전

성균관은 21일 상오10시 성균관대성전에서 공자 탄강 2533주년 가을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은 초헌관 李載瑞성균관관장 아헌관 李相球성균관대학원장 종헌관 李玉童유도회 부위원장등이 39위 성현들에게 주잔을올리는데서부터 시작, 축문을 불사르는 望燎禮에 이르기까지 1시간10분동안 진행됐다.

日帝의 "殘虐"을 판다

堤岩里순국지사 遺骸찾는 첫삽질

【華城=李忠雨기자】 일본군에게 원통하게 학살당한 堤岩里순국지사의 유해를 찾는 삽질이 21일상오10시 경기도 華城郡鄕南面桃李里공동묘지에서 시작됐다.

堤岩里학살사건의 유일한 산증인인 86세의 田同禮할머니가 발굴현장에 나와 학살당한 지점을 손가락질하면서 『63년이 흐른 이제야 원통하게 눈을감은 순국지사들의 유해를 찾다니…。 속죄교회를짓고 기념탑을 세우면서도 이분들의 유해를 찾을생각을 왜 지금까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흐느끼며 말을잇지 못했다.

문교부는 역사상 민족수난의 현장을 국민교육도장으로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1억원을 들여 제암리현장에서 올해안에 순국지사유골을 모두찾아내 묘소를만들고 3·1운동 순국기념탑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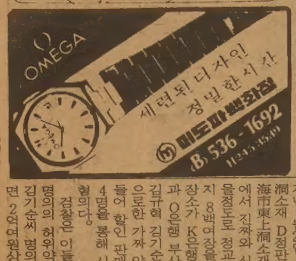
또 내년도에는 현 堤岩里교회 교육관을 개수하여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기록화7폭을 제작하여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스크랩등 관련자료와함께 종합전시할 예정이다.

堤岩里사건은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4월15일 경기도 華城郡鄕南面堤岩里 두렁바위마을에서 주민29명이 예배당에 갇힌채로일본군에의해 학살된 사건。

일본군 제20사단39여단78연대소속 아리다·다께오중위가 인솔한 일본군들은 3·1운동 가담자로 미리 내사한 동네사람 29명을 3칸짜리초가 마을예배당에 가둔후 집중사격과 방화로 처참하게학살했었다.

이들의 유해는 문화재관리국 보존과학연구실 金東賢실장의 지도로 온전하게 발굴하여 현재 堤岩里교회 뒷동산 6천여평에 합장묘소를 조성키로 했다. 그렇게되면 공동묘지에 방치됐다가 63년이 지나서야 안주를얻게된 셈이다.

◇63년 만에 堤岩里학살 사건이 일어난지 63년만에야 순국지사들의 유해를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유일한 산증인 田同禮할머니가 나와 학살 현장을가르쳐주고 있다. 【權周勳기자찍음】



釜山에 수십億臺 가짜어음

위조詐欺團검거 8백여장 인쇄 流通

2명구속 3명手配

【釜山】 부산지검 수사과는 21일 8백여장의 위조약속어음을 시중에 불법유통시켜온 대규모어음사기단을 적발, 이중 가짜어음을 인쇄、제작해온 주범 金三植씨(28·釜山鎭區開琴2洞주례주택159호)와 할인판매책 張兆翼(45·海雲臺區盤松洞205)등2명을 유가증권 위조·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할인판매책 박칠준씨(40)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인장업자인 鄭京永씨(40·釜山鎭區釜田2洞935)를 인장업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위조약속어음2백56장과위조에 사용해온 고무인 철인 26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金은 지난8월20일 부산中區大廳洞소재 D정판사와 경남 金海市東上洞소재 Y인쇄소등에서 진짜와 식별하기 어려울정도로 정교한 약속어음용지 8백여장을 인쇄한후 지급장소가 K은행에 부산진지점과 O은행 부산지점으로된 김규혁 김기순씨등을 발행인으로한 가짜 약속어음을 만들어 할인 판매책인 張씨등을 통해 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김규혁씨 명의의 허위약속어음 17장과 김기순씨 명의의 10장등 액면 2억여원상당을 이미 할인 판매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 인쇄된 8백장중 없어진 5백17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사용해 수십억대의 가짜약속어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釜】

세계 女性단체協 어제 서울서總會

李順子여사 參席

제2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가 21일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와 32개국 2백50명의 여성대표, 국내 여성단체대표, 주한외교사절등 3천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막됐다.

영부인 李여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남녀평등의 사상이 우리생활에 속속들이 뿌리내리게 하는일은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모든 인류의 공통의 과제』라고 말하고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지니고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수있도록 하자면 누구보다도 먼저 여성자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명한 길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모색해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을 가진 총회는 「여성과 국제개발전략」을 주제로 오는 10월1일까지 계속된다.

拷問으로 殺人누명 씌운

警官 5명을 파면

치안본부는 21일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던 전북全州경찰서 邢柄權경위, 林永煥경사, 蘇淳奎경사, 朴泳輪경사, 崔日先경장등 경찰관5명을 파면, 공무원폭력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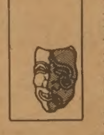
邢경위등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해 6월24일 全州市孝子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용의자로 金詩勳씨(30·노동·충남大田市東區大洞194)를 검거, 폭력을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치안본부는 앞으로도 마구잡이 수사로 인권을침해하는 경찰관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小心공포증」

서울大 학생처장 趙鏞涉씨

고달픈 矜持… 노래소리만 들려도



서울大 趙鏞涉학생처장(48·사진)의 방은 「학생처장」이란 직분에 걸맞는 명당자리다. 방에서 도서관과 대학건물이 빤히 내려다보여 마치 망루처럼 보인다.

趙처장은 이방에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캠퍼스를 내려다 본다. 어디서 노래소리만 크게 들려도 스스로 일어난다. 강의실이나 도서관으로 가는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 보는게 습관처럼돼버렸다.

『고개가 약간 왼쪽으로 돌아간 것같다』는 趙처장은 벽을 보고있는 책상과 응접세트를 아예 도서관쪽이 보이도록 재배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건의를 자주받는다.

학생처장직을 맡은 것은 지난 80년7월. 임기2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연임되었다. 자신이 왜 이직책을 맡게됐는지 지금도 그이유를 모른다. 그동안 느는것은 신경이 날카로와진것 뿐이다. 취객이 「선구자」라도 목청을 돋우어 부르면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놀란부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한다. 그때마다 한참동안 그이유를 헤아려보지만 아직껏 답을 얻지 못했다.

2년간의 보직생활중 소심공포증 환자가 된게아니냐는 趙처장의 학생에 대한 사랑은 그어느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단체행동이라도 하면 같이뛰며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짝사랑하게 만들거냐』며 학생들을 붙잡고 호소 한다。 좌불안석의 학생처장이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점에서 「고달프지만 긍지」를 느낀단다.

趙처장은 지난 54년 서울대농대에 입학한후 미네소타대학에서 생물학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줄곧 서울대에 몸담아온 서울대맨. 지난 80년 1학기 농대에서 학생담당학장보를 지내는 동안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면학분위기를 조성한 탁월한 공을 인정받아 학생처장에 임명됐다는것이 주위의 이야기다.

토요일 오후 水原 농대에 강의하러 갈때가 가장 즐겁다는 趙처장은 학생들과의 대화의 광장이던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광장에 올 봄에 촘촘히 심은 장미가 빨갛게 피어있는 것을 보며 묘한 감회에 젖는듯 하다. 【鄭在龍기자】

張여인사건 抗訴審앞두고

巨物級변호사들 대거登場

1심에서 전원 유죄판결을 받은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관련피고인 32명(법인체 1포함)중 李圭光피고인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을앞두고 변호사들을새로선임하거나 추가선임한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대법원판사와 검찰총장 검사를 지낸 거물급변호사들로 항소심에서는 1심때보다 한층 열띤 법률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던 李圭光피고인은 대검 검사를 지낸 鄭明來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30페이지에 가까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李·張부부는 1심때의 文仁龜변호사 이외에 대법원판사를 지낸 安秉洙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또 趙淳卿、金東永、邊泰洙피고인등 공영토건 간부들도 1심때의 변호사외에 서울지검장및 光州고검장을 지낸 徐廷覺변호사를,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은 최근 서울고법원장직에서 퇴직한 全秉憲변호사를, 전조흥은행장 林在秀피고인은 姜信玉변호사를, 사채업자 黃赫변호사를 지낸 尹雲永변호사를 각각 추가로 선임했다.

한편 李圭光, 郭慶培, 孔德鍾, 田永宋, 黃赫老, 金勇男피고인등 6명은 보석을 신청했다.

이사건 2심공판은 서울고법형사2부 (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심리로 오는 10월중순께부터 열릴 예정이다.

前宜寧경찰서장 파면취소請求訴

경남宜寧경찰관 총기난사사건과 관련, 파면된 전宜寧경찰서장 崔仁潤씨(57)가 21일 내무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崔씨는 소장에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했으며 직무를 태만히 한일이 없다면서 설령 직무태만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그정도는 아주 경미할뿐아니라 36년간 경찰에서 세운 공적으로 보아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慶山邑 발굴現場

伽倻시대 천조각 6點 林堂洞고분서 나왔다

【慶山】 경북 慶山郡慶山邑 林堂洞2호고분을 발굴중인 영남대 고분발굴조사단은 21일 상오 2호분 석실 밑바닥에서 1천5백년전 가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천조각 6점을 발견했다.

발굴조사단은 이날 2호 고분 석실 밑바닥에 깔린 유물을 발굴하기위해 진흙을 파내던중 7㎜ 길이의 가늘고 조밀하게 짜여진 천조각과 올이 굵고 엉성하게 직조된 두종류의 천조각 6점을 발굴했다.

이 천조각들은 모두 육안으로 판단할수 있을정도로 선명한 상태로 출토됐는데 발굴단은 천이 놓여 있는 위치와 종류로 보아 무덤설치 당시 석실에 묻힌 사람에게 입혔던 수의의 일부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굴단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천조각중 가장 오래된것이 조선중기의 것이어서 이날 발견된 천조각은 한국의 복식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천의 형태로 보아 당시의 직조기술이 상당히 발달됐었다는 사실을 알수있게됐다고 덧붙였다. 【韜】

기온뚝 떨어져

20일하오 일부지방에 소나기가 스치고지나간뒤 기온이 예년보다 3~4도씩 떨어져 21일은 전국적으로 서늘한 가을날씨를 보였다.

21일새벽은 서울이 10도9분으로 예년보다 3~4도가 낮았고 대관령 7·3도, 仁川11도등의 분포를 보였다.

중앙기상대는 대륙에서 접근하는 한랭한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서늘한 가을날씨가 22일까지 계속되다가 23일부터는 예년기온을 회복할것으로 내다봤다.

안강망 漁船규제 業界서 크게반발

【馬山】 농수산부가 어선규모및 설비기준에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원·근해에서 조업하는 안강망어선의 시설규모를 1백톤미만으로 제한하자 수산업계 일부에서는 어선대형화추세에 역행하고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있다.

인근 관련수산업계에 따르면 수산청은 지난7월 종전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던 안강망에대해 올해 건조하게 될 제7차계획조선부터 1백톤미만으로 건조하도록하고 어구도 4통(桶)에서 3통까지만 선적하도록 제한했다. 【韜】

5行뉴스

◆사업용運轉者에 交通교육 치안본부는 서울·부산등대도시에 거주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10월1일부터 한달동안 교통질서의식 개혁을위한 임시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추석대공연

오리엔탈팔레스 8주년기념

여러분의 민요가수

최정자 특별초청쇼

기간 : 9월23일(목)부터 2주간

추석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가수 최정자를 선보입니다.

친구·가족동반하시고 흥겨운 하루를 즐겨주십시요.

희트곡 : 처녀뱃사공등 수백곡

뉴서울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 · 533—1500

경로잔치에도 노년들을 위해서 가수 최정자양이 출연, 민요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악단 : FIREBIRDS

한국女子배구 對日戰 完敗

無氣力…좌우공격의존 失手연발

구기종목서 최초로 올림픽 銅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여자 배구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참담하게 몰락했나. 한국여자 대표팀은 21일상오 페루리마에서 벌어진 제9회 세계 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日本과의 경기서 日本에 퍼펙트세트(15-0)를 허용하는등 눈뜨고 볼수없는 무기력한 졸전 끝에 3-0으로 완패, 印度아시안 게임을 눈앞에 두고 큰충격을 일으켰다.

이날 TV로 韓·日戰을 지켜본 많은 배구팬들은 『도대체 趙錫來회장을 비롯한 배구협회 집행부와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그동안 뭘했다는말인가. 韓大化의 역전3점홈런으로 日本을 쓰러뜨린것이 엊그제 연는데 여자배구가 돌이킬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다니…』라며 배구협회의 무사안일 행정을 나무랐다.

한국여자 배구가 日本에 퍼펙트세트를 빼앗긴것은 이번으로 두번째. 79년 12월 제2회 아시아여자 선수권대회 (홍콩) 제5차전 제4세트에서 한국은 日本에 치욕적인 0-15로 당하고 세트스코어 3-1로 패배했었다.

21일 경기서도 1년9개월전의 참패를 설욕하기는커녕 첫세트를 퍼펙트로 내준뒤 40여분만에 3-0으로 쓰러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수모를 두번씩 당한것이다.

이날 한국이 보여준 플레이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 졸작이었다. 공격·수비·블로킹·정신상태등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안돼있었다.

한국은 단조로운 좌우공격에만 치중,중앙속공,시간차등 다양한 트릭플레이를 구사하지못한채 日本의 페이스에 말려 정신없이 실점하고 말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것은 대표팀 田好寛감독이 트릭플레이보다는 좌우 오픈강타위주의 배구를신봉해왔기때문. 한국의 수비력과 블로킹은 브라질,캐나다등 약체팀들에게는 통할지모르나 日本·中共·美國등 강호들에겐 통하지않는다.

한국선수들은 정신적 무장이 잘안되고 긴장한나머지 첫세트에서 흡사 발이 코트에 얼어붙은것 처럼 뻣뻣했다.

세계수준의 한국여자탁구가 마인드·콘트롤등을 대표팀훈련에 적용시켜 정신무장을 다져왔지만 배구계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했다.

여자대표팀의 참패를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만 책임지울일이 아니다.

79년 아시아선수권서 한국에 치욕을 안겨주었던 日本대표팀 고지마감독은 당시 『차·포를 떼고도 이겼다』고 모욕적인발언을 했었지만 배구협회나 배구인들은 이같은 수모를 두번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도없었고 치밀한 계획도 수립하지않았다.

80년 9월 趙錫來회장을중심으로 구성된 배구협회는 대표팀전력강화와 장기계획수립을 입으로만 외쳤을뿐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趙회장은 81년11월 「88림픽대비 경기력 향상대책」이란 배구발전 장기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빈틈장신유망주들을 발굴하고 대표팀 1·2진구성,高麗大·延世大에 배구팀 신설등을 토대로 하여 88년 서울올림픽때 여자는 금메달, 남자는 동메달을 목표로한다는 거창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1년이 가까와온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고있는 계획은 별로없다.초·중·고선수들이 지나친 기교를 통제하기위해 경기룰을 개정하는 것과 지난여름방학때 주니어급 장신선수들을 한차례 훈련시켰을뿐이다.비틀록 장신유망주 발굴작업은 지난해 연말에 시도했으나 끝을맺지 못한채 흐지부지됐다.

배구계에는 현 집행부에대한 불신이 높다.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2일 이 약체 불가리아만 꺾으면 4강에 오를수있다. 그러나 4강에 오른다해도 이것은 대진운이 좋았기때문이다.美國·中共·쿠바·소련등 강호들이 버티고있는 준결승리그에 함께 속했더라면 9~12위권으로 밀려났을지 모른다.

배구협회 집행부·강화위원회·코칭스태프 모두가 日本에 당한 오늘의 치욕에 책임을 져야한다. 4강진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허상(虛像)의 4위」로 자위해서는 안된다는것이 팬들의 이야기다.

國際배구…불가리아에 한국男子 역전패

【리오데자이네이로AP=聯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고있는 국제배구대회에 참가중인 한국남자배구팀은 19일 속개된 불가리아와의 3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1로 패배했다.

한국팀은 지난17일 日本과의 1차전에서 3-1로 패했으나 18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는 3-1로 승리한바있다.

한편 이날경기에서 日本은 프랑스를 3-0으로,브라질은 멕시코를 3-1로 각각 물리쳤다.

◇19일전적

불가리아	3 (15-11 15-9 15-9 11-15) 1	한국	
일본	3-0	프랑스	
브라질	3-1	멕시코	

구독신청 배달시간

世界 女子배구 너무 졌다

【리마 (페루)=聯合】 한국은 제9회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3차전서 숙적 日本에 3-0으로 참패, 3승1패를 기록했다.

21일상오 (한국시간) 이곳 아마나도 체육관서 벌어진 對日本전서 한국은 첫세트를 0-15로 빼앗기는 치욕끝에 한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40분만에 무너졌다.

◇3차전적

일본 (4승)	3 (15-5 15-3 15-0) 0	한국 (3승1패)
불가리아	3-2	캐나다
미국	3-0	헝가리
쿠바	3-0	호주

WBC、WBA斷交 南阿人議長에 반발

【멕시코시티=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는 라이벌관계에있는 세계권투협회(WBA)가 南阿共출신 H·W·O·클로퍼 제1부회장을 임시회장에 앉힌데 반발, 클로퍼임시회장 휘하의 WBA와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WBA는 오는10월4일 푸에르토리코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사망한 로드리고·산체스前회장의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의 WBC본부는 성명을 통해 『WBC는 백인들만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있는 南阿共출신회장 휘하의 기구와 관계를 맺을수 없다. WBC는 클로퍼가 회장으로있는한 WBA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次期 WBA회장으로는 베네수엘라출신의 길베르토·멘도사씨가 유력시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金相賢 SL급2위 WBC 9월랭킹

▲헤비급=Ⓒ래리·홈즈(미) ▲크루저급=Ⓒ고든(미) ▲라이트헤비급=Ⓒ드와이트·브랙스톤(미) ▲미들급=Ⓒ마빈·해글러(미) ▲슈퍼웰터급=Ⓒ윌프레도·베니테스(푸에르토리코) ▲웰터급=Ⓒ슈거레이·레너드(미) ⑨黃忠載(한) ▲슈퍼라이트급=Ⓒ르로이·해리(미) ②金相賢(한) ▲라이트급=Ⓒ알렉시스·아르게요(니카라과) ⑦金得九(한) ▲슈퍼페더급=Ⓒ라파엘·리몬(멕시코) ⑦崔忠日(한) ▲페더급=Ⓒ후안·라포르테(미) ⑧柳煥吉(한) ▲슈퍼밴텀급=Ⓒ윌프레도·고메스(푸에르토리코) ②鄭巡鉉(한) ▲밴텀급=Ⓒ루페·핀토르(멕시코) ⑤李承勳(한) ▲슈퍼플라이급=Ⓒ金喆鎬(한) ▲플라이급=Ⓒ프레디·카스티요(멕시코) ⑤權順天(한) ▲라이트플라이급=Ⓒ일라리오·사파타(파나마) ⑤張正九(한) ⑧金煥珍(한)

유고 世界역도 韓國新세우고 8위 李龍求 60kg용상서

【유그리아나(유고)=聯合】 한국의 李龍求(조폐공사)는 20일하오 이곳 더브리체육관에서 벌어진 제36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3일째 60kg급 용상경기에서 1백57·5kg을 들어 한국신기록(종전 1백55·5kg)을 수립하는 한편 용상서 8위를 차지하고 토틀에서 2백65kg(한국타이)으로 22명중 10위를 마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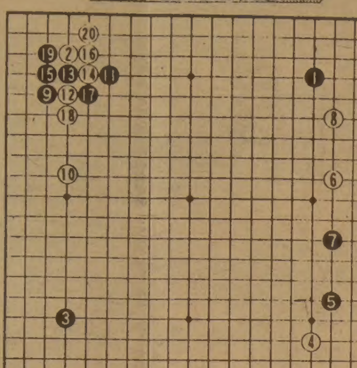
李는 인상에서는 1백7·5kg으로 17위에 머물렀다.

한편 蘇聯의 샤르티샨은 토틀 2백92·5kg으로 세계타이기록을 수립, 우승했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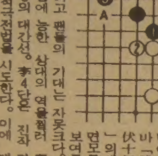
第3局 第1譜 1~20 (각4시간·덤5집반)

白 (7段) 鄭 鉉
黑 (4段) 李 相 激



鄭7단은 호권의 풍모를 지닌 이색적 기사다. 20년전에 입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렵하고 잘롱한 수법을 과시하며 각타이틀전 본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제4기五強戰우승, 제2기上位戰준우승, 제1기棋王戰우승, 제3기MBC國棋戰준우승등 66년에서 77년사이의 10년간은 전성기에 해당한다. 名人戰도 제1기부터 제6기까지 고정멤버였으며 특히 제5기에는 당시 약관의 名人이었던 徐奉洙현7단에 도전, 아깝게 패했으나 관중을 열광케하는 名局을 적잖이 남겼다. 78년이후 갑자기 중앙무대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이제 名人戰본선에 복귀한다면 이른바 「雌伏十年」의 새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팬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鄭7段 雌伏十年



싸움에 능한 상대의 연풀흐려 1、3의 대각선。李4단은 진작 전한 적극전법을 시도한다。이에 대하여 鄭7단은 白2、4에서 다시 6。우선은 차분하게 장기전을 피한다.

黑9를 李4단은 5분동안 주춤주춤했다。이수로 참고도처럼 黑1에 붙여 白2 黑3(또는「A」)도 무방하지만 역시 큰곳에 先行한것。白10으로 우변白6과 똑같이 徐行했을때 黑11부터 때이른 전투개시다. 黑19까지의 기본형에서 白20이 가볍 본수인데 다음 黑의 응수는 어떨까。【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2>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⑳

오목이는 간질병을 가진 청년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그날이 그날처럼 천연덕스러웠다。보통사람과 다른데라곤 없었다。

옷 입은 거며, 걸음 걷는 거며, 추위타는 거하며, 술 먹고 주정하는 거하며 보통사람보다도 눈에 띄게 천연덕스러웠다。

오목이는 어느 날 가슴이 철렁하면서 깨달았다。보통사람이상의 저 천연덕스러움이야말로 되레 간질의 전조(前兆)가 아닐까하고。

오목이는 어쩌면 간질병을 가진 청년과 일환이를 동일시하고있는지도 몰랐다。둘다 아무도 걷잡을수 없는, 본인조차 입으로 할수없는 폭발물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목이를 조바심나게 하는 건 안집 청년의 천연덕스러움이 아니라 일환이의 천연덕스러움이었다。

일환이도 매일 매일 부지런하고도 명랑했다。아침엔 일찍 나갔다가 저녁엔 늦게 들어왔지만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고 리어카꾼은 김장철이 한철이고 보일러쟁이는 겨울이 한철이라고 나야말로 몸이 몇개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너무 늦게 들어온 날은 이렇게 늦게 들어온 변명겸 으스대기도 했다。

마침 정부 시책이 주유종탄(主油從炭)이라고 해서 연탄보일러나 아궁이를 기름보일러로 개조하는 집이 많았고 신축하는 집은 아예 구식 연탄아궁이는 만들지도 않았다。

일환이가 일하고있는 보일러가게는 명년에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따라서 기사주임인 일환이의 수입도 쏠쏠한편이었다。 그래서 일환이는 매일매일 기분이 좋았다。혈색도 예전처럼 좋아졌고 작은 눈은 뭐일이 잘 돼갈때의 그 특유의 과장된 희망으로 밝게 빛났다。집에만 들어오면 그는 뻐드렁니를 다물지를 못했다。

아기 보고 웃으랴, 아내 보고 웃으랴, 늘어나는 살림 보고 웃으랴。

더도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도 오늘같이만 행복하게해주소서。오목이는 앉았다가도 섰다가도 아기 젖을 먹이다가도 이렇게 빌었다。

오목이는 오늘의 행복을 의심하지 않았다。그러나 내일의 행복을 믿지 못했다。그래서 늘 불안했다。

오늘이 그녀의 행복한 날의 마지막 날일까봐 불안했고, 일환이의 천연덕스러움이 폭풍전야의 정적일까봐 불안했고,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엇이 될까가 두려웠다。

오목이는 아기가 자라는게 마치 아기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녀를 향해 달음쳐오는 것처럼 보였다。

아기는 그렇게 빨리 자랐다。작고 희미하던 모습이 점점 크고 뚜렷해졌다。지금은 아기일뿐이지만 곧 어른의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아기가 그녀의 뱃속에서 콩꼬투리처럼 작았을 때 그녀는 바랐었다。아이는 눈이 컸으면, 이마가 번듯했으면, 코가 잘 생겼으면, 촌스럽지 말았으면, 총명했으면 하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아기는 커가면서 눈이 작았으면, 이마가 좁았으면, 코가 펑퍼짐했으면, 피부가 검었으면, 촌스러웠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뻐드렁니였으면하고 바랬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아기는 사정없이 다가오고 있었다。자기의 얼굴은 물론 자기에게 피를 나눠준 조상의 모습까지 닮아올만큼。

상호변경안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옵니다.

저희는 금번 영문상호를 "KYUNG LEE & CO CERTIFIED GENERAL ACCOUNTANT"로 변경하고, 회계·세무 전반에 걸쳐 보다 전문적인 써어비스를 드리고자 하옵니다.

그간 저희 회계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옵니다.

1982년 9월

이경복 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 766－5639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 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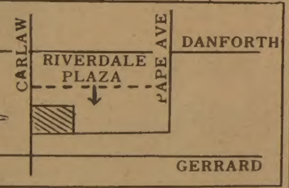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도매사업이니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PICK－UP 또는 주문, $150 이상)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공 고

1982년 9월 18일(토)부터 저희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영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월요일～목요일 : 오전10시～오후6시
◎ 금요일 : 오전10시～오후7시
◎ 토요일 : 휴무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ST. W. TORONTO M6G 1L1
☎ : 533－9387 · 9388

청소년 문화잔치
우리말 잘하기

교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를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의해 제2회 우리말 잘하기 및 웅변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0월10일(일) 오후5시
장 소 :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제 목 :

우리말 잘하기	웅변대회
자유(5분간)	한글을 배워야 할 이유(7분)

등록마감 : 10월7일(목)
연 락 처 : ☎:789－7352

후원 : 각한글학교 · 총영사관 · 실업인협회 · 한인장학재단 · 한인회 · 외한은행 · 한일은행

공동주최 : 한 · 카청소년 문화협회 · 토론토라이온스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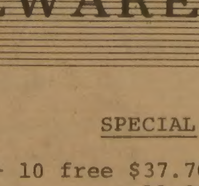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September 20 - October 2 SPECIAL

Halls Prepack	7 boxes x 20 count + 10 free	$37.70
Will-O-Pack	12x1.69	11.88
Fruitella	36x.25¢	4.95
Chocolate Chunks	120x.15	10.29
Beechnut Cough Candies	24x.30	4.40
Fruit Slice Pops	10x.48	3.16
Tic Tac	24x.35	5.30
Astro Pops	36x.25	6.12
Space Fleet	48x.25	7.65
Lola	24x.33	4.19
Y & S Twizzlers	24x.40	6.39
Y & S Nibs	24x.30	6.39
Y & S Goodies	24x.30	6.3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佛·伊 레바논派兵 검토

팔難民 千8백명 虐殺

베이루트 收容所 급습

◇殘酷 학살된 시체가 서로 엉켜 나뒹굴고 있는 西베이루트 사브라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처참한 광경。【베이루트=AP聯合】

【베이루트·예루살렘AP UPI=聯合】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 두곳에서 1천8백명의 민간인남녀와 어린이들이 17일밤부터 18일아침사이에 무참하게 살해된 대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팔레스타인관리들이 19일 밝혔다.

난민수용소의 대학살현장은 18일 현지특파원들에의해 목격됐는데 최근까지 수만명의 팔레스타인난민들을 수용하고있던 차틸라수용소의 폐허위에는 참혹하게 학살된 민간인들의 시체가 10여구씩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대부분의 시체는 수십에이커의 넓이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숫자를 알수는 없었다.

어떤 곳에서는 남자들이 사살되기전 담앞에 정렬됐던 것같은 흔적이 보였고 시체를 감추기위해 불도저를 사용, 폐허에 묻은 흔적도 보였으나 팔과 다리가 삐죽이 드러나 있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서베이루트진입이전 레바논정규군이 장악하고 있던 사브라및 차틸라 수용소는 팔랑헤黨군들이 입구를 차단하고 통행금지조치를 취했는데 수용소 인근에 주둔한 이스라엘병사들은 17일밤 팔랑헤黨군들이 수용소로 들어간직후 격렬한 총격음이 연거푸 들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WAM통신은 이스라엘침공군들이 西베이루트와 인근의 여러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민간인들에 대해 잔학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함께 대규모 검거작전을 벌이고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외무성은 이 대학살사건에 관해 성명을 발표, 사브라및 차틸라난민수용소에 대한 공격은 지난14일 爆死한 바시르·게마엘 레바논대통령당선자의 팔랑헤黨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외신=聯合】이스라엘 정부는 20일 이스라엘군을 베이루트에서 계속 철수시키고 유엔업저버단의 베이루트 방문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국영방송이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같은 결정이 19일밤 베긴수상집무실에서 긴급 소집된 심야각의에서 내려졌으며 20일아침 공식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서베이루트에서 부분적인 철군을 시작했으며 문제의 난민촌과 여타지역은 레바논정부군에게 인계했다.

이에 앞서 레이건미대통령은 18일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난민촌학살사건에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하고 전에없는 강경어조로 서베이루트주둔 이스라엘군의 즉각철수를 요구했다.

【예루살렘AP 聯合=聯合】이스라엘야당지도자인 페레스勞動黨首는 19일 베긴수상과 아리엘·샤론국방상에 대해 이스라엘군의 서베이루트진입에대한 책임을 지고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국민들은 전국각지에서 이스라엘군의 침략행위와 팔레스타인난민들의 대량학살을 규탄하면서 베긴수상의 하야를 요구하는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베이루트AP 聯合=聯合】와잔 레바논수상은 19일 이스라엘군이 점령중인 서베이루트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또 한차례의 대량학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탈리아·프랑스등 3국에 대해 평화유지군을 즉각 재파견해주도록 요청했다.

세송 프랑스외상은 이날 레바논측의 그와같은 요청에 대해 유엔과 협의, 평화유지군을 레바논에 재파견할 태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은 이스라엘의 西베이루트진입과 잇달아 일어난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의 대량학살등 새로운 레바논사태수습을 위해 이미 철수한 美해병대의 레바논재투입을 신중히 고려중에 있다고 20일 워싱턴·포스트紙가 정통한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유엔調査團 向發

【예루살렘AP聯合=聯合】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을 조사하기위한 40명의 유엔업저버단이 20일 북부이스라엘의 나하리야市를떠나 베이루트로 갈것이라고 이스라엘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社會漫評

세계가 격노!!!

定期國會 어제 개회

經濟안건등 議案 百60여

제114회 정기국회가 俞泰興대법원장 金相浹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등 3府요인이 참석한가운데 20일 하오2시 開會되었다。오는12월18일까지 90일간의 會期로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追更案、81년도 決算案、稅法개정안등 경제관계법안과 同意案등 1백60여건의 각종議案을 처리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측이 제출한 國會法개정안과 地方自治制실시에관한 법안등 소위 政治議案의 처리를 둘러싸고 與野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不況 赤字예산안, 實名去來制등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것으로 보인다。

丁來赫국회의장은 이날 開會辭를 통해 『앞으로 우리국회는 단순히 民意의 반영이라는 화원에 머무르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결속을 生成하는 和合의 殿堂이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보다 알차게 民主·생산·능률을 조화시켜 國會史의 새로운 里程表를 제시하게되기 바란다』

서울우유協同組合 1천만원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柳允洙조합장 조합원일동)

◇柳允洙씨

◇홍승달씨

◇李在洪씨

<20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육군7856부대 장병 소집예비군 6백1만원
구로남국교 고영욱교장 外 2백19만원
韓國존슨(株) 洪承達회장 外 2백12만원
서울상도국교 盧成烈교장 外 2백 만 원
서울송천국교 박종구교장 外 1백66만원
(株)東亞精機 郭魯得대표 外 1백55만원
清涼里市場 金善德사장 外 1백45만원
서울전곡국교 직원·학생 1백41만원
서울백산국교 이봉삼교장 外 1백37만원
서울재동국교 오정옥교장 外 1백18만원
三扶콘크리트 李在洪대표 外 1백13만원
東大門시장상우회 (광장)회원 1백12만원
서울남산국교 이기창교장 外 1백5만원
(株)如意商事 李鍾原사장 外 1백 만 원
서울창경국교 강달원교장 外 97만원
서울서빙고국교 변영섭교장 外 83만6천원
國立中央圖書館 盧啓鉉관장 外 67만2천원
서울中部市場(株) 47만원
서울中部市場상인 60만원
서울中部市場점포主 30만원
鐵道專門大學 56만원
창덕女高放通高校 54만원
서울역촌국교 47만원
世元海運(株) 40만원
서울종암국교 36만원
서울성내국교 30만원
陰城郡매괴信協盧尙寧이사장 30만원
陰城郡감곡중학교 23만원
陰城郡감곡국교 22만원
서울역삼국교 20만원
江南區方背洞早起會 20만원
한국천주교사도직協 20만원

▲서울우유協同組合柳允洙組合長외組合員一同=1천만원
▲육군제7856부대장병및동원소집예비군일동=6백1만9천5백원
▲서울구로남국교 (교장고영욱) 전교생 (대표6년박상준·김미라·인솔교사 유영은) 및 교직원일동=2백19만4천1백75원【소년한국일보접수】
▲韓國존슨(株) 회장洪承達씨외임직원一同=2백12만4천원
▲서울상도국교 (교장盧成烈) 교직원및학생일동=2백만2천6백70원
▲서울송천국교 (교장 박종구) 전교생 (대표 6년 손지명·이종구·5년 방신호·인솔 교사 최성민) 및 교직원일동 (2차분)=1백66만3천3백55원【소년한국일보접수】
▲(株)東亞精機대표이사 郭魯得씨외임직원一同=1백55만8천2백70원
▲清涼里市場(株) 사장 金善德씨외 임직원및商人一同=1백45만2천원
▲서울전곡국교 전교생 (대표 6년 허미옥·박재혁·이문·5년 최명환·인솔 교감홍종걸·교사 윤혜선) 및 교직원일동=1백41만8천8백원
▲서울백산국교 (교장 이봉삼) 전교생 (대표 6년오상훈·엄승연·5년 권덕주·인솔교사 김순식) 및 교직원일동=1백37만2천4백30원【〃】
▲서울재동국교 (교장 오정옥) 교직원및학생일동=1백18만9천3백35원
▲三扶콘크리트工業(株) 대표이사 李在洪씨외 임직원一同=1백13만7천원
▲東大門시장상우회 (광장) 회원一同=1백12만1천원
▲서울남산국교 (교장 이기창) 전교생 (대표6년 김태호·이혜진·5년 박성민·인솔 교사 김청길) 및 교직원일동=1백5만8천6백50원【소년한국일보접수】
▲(株)如意商事 사장 李鍾原씨外=1백만원
▲서울창경국교 (교장 강달원) 교직원및 학생일동=97만4천80원
▲서울서빙고국교 (교장 변영섭) 전교생 (대표 6년 육지영·김소영·인솔교사 양화선) 교직원일동=83만6천5백원【소년한국일보접수】
▲國立中央圖書館長盧啓鉉씨외직원一同=67만2천2백원【〃】
▲서울中部市場 (株) 대표이사辛鍾尹씨외임직원一同=47만9천7백원
▲서울中部市場商人一同=60만5백원
▲서울中部市場店舖主친목회원一同=30만원
▲鐵道專門大學吳華錫학장외 교직원및 학생一同=56만원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및학생일동 (대표 신동하·정락훈) 一同=54만7천40원
▲서울역촌국교 (교장서구문) 교직원및학생 (2차분)=47만5천7백80원
▲世元海運 (株) 대표이사 李聖鎭씨외 임직원一同=40만원
▲서울종암국교교직원一同=36만7천원
▲서울성내국교 (교장 김갑순) 교직원일동=30만5천6백원【소년한국일보접수】
▲忠北陰城郡甘谷面매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盧尙寧씨=30만원【長湖院지국접수】
▲忠北陰城郡甘谷面감곡중학교 (교장 安祥鉉) 학생 (대표 신동하·정락훈) 一同=23만7천3백원【〃】
▲忠北陰城郡甘谷面 감곡국교 (교장 許錫範) 학생 (대표 이용민) 一同=22만9천45원【〃】
▲서울역삼국교 (교장 김신근) 교직원일동 (대표 문재일·김옥자) (2차분)=20만4천원【소년한국일보접수】
▲江南區方背洞早起會 회장 임종만씨외 회원一同=20만2천5백원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회 (회장 엄익채)임원一同=20만원

◇구로남국교대표

◇상도국교대표

◇동대문시장상우회

地平線

제37차 유엔총회가 21일부터 열린다。2차 대전후 한두번 거르기는 했으나 총회가 거듭될때 마다 회원국수는 늘어나 1백57개국의 유엔 大家族을 형성했다。▼하지만 회원국이 늘어난만큼 유엔의 權威와 權能이 늘어났다고 말하는사람은 아무도 없다。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빚어냈다고 표현하는것이 사실에 가깝다。유엔憲章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있을것이다。그러나 大戰後 일어난 숱한 局限전쟁, 지역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유엔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못했다。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調停역할은 퇴색되어 버린지 오래다。▼그렇더라도 해마다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많은 안건이 의제로 오른다。韓半島문제는 벌써부터 上程되지않는터이지만 올해도 그 의제는 작년총회에서 다루었던 中東사태、이란—이라크전쟁、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 문제、캄푸치아 문제등 1백30건에 이른다。금년총회는 東西진영、南北그룹및 분쟁당사국간에 더 치열한 對決논쟁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된다。▼中東사태만해도 그렇다。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레바논에서 8개아랍국가로 뿔뿔이 철수한 연후 이스라엘의 西베이루트점령、레바논內 팔레스타인 피난민수용소의 대학살사건등이 터졌기 때문이다。아마도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을 둘러싸고는 전에 볼수 없었던 치열한 攻防戰이 벌어질것같다。벌써부터 소련은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타스통신을 통해 주장하고나섰다。▼PLO의 한대변인은 레이건대통령이 추진한 多國籍평화군의 보호아래 PLO戰士들이 레바논을 철수한뒤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으니 난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적지않다고 지적하며 나섰다。아르헨티나와 쿠바를 포함한 中南美20개국은 포클랜드전쟁 뒷수습문제를 유엔反植民委員會에서 거론한 만만찮은 태세를 취하고있다。포클랜드 뒷수습을 南北對決의 시각에서 도전하려는 것이다。▼유엔이 세계분쟁 해결의 場이 돼오지는 못했으나 세계여론을 환기시키는 場으로서는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평화로 연장하기 위해 유엔은 작년11월 해마다 9월 제3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한바 있다。그 제정은 81년 열린 세계大學總長회의 당시 의장직을 맡았던 趙永植 경희대학총장이 주창한것이 실마리가 되어 채택됐으며 오늘은 그 제1회 「평화의날」이다。

全대통령포함 財產등록마쳐

民正黨 百90명

民正黨은 지난1일부터 소속의원및 중앙당局長級이상 간부、市道支部사무국장등 당직자 1백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財産등록신고(不動産만 局限)를 20일하오 마감했다。金瑢泰대변인은 이날하오 당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을 비롯、1백90명의 대상자전원이 부동산등록신고절차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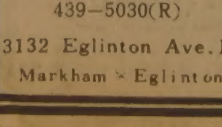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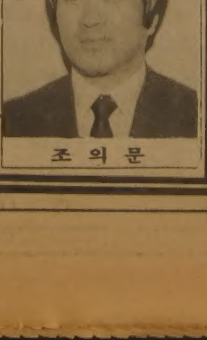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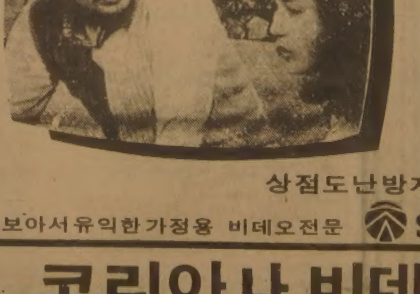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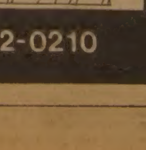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우기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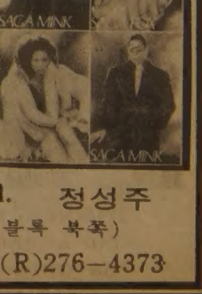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오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UP TO
40% OFF
저렴한 가격 40%
까지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世界를 전율케한「팔難民村 대학살」

누가 왜 그들을 죽였는가…

게마엘爆死·PLO에의 報復 성격

팔랑헤黨·하다드少領·이軍에 혐의

누가 그리고 왜 1천8백여 팔레스타인 난민을 그토록 무참히 학살했는가. 이스라엘은 이학살사건에 어느정도 개입했는가. 단순한 묵인내지 방조인가 아니면 레바논내 親이스라엘세력에게 이끔찍한 만행을 사주했는가.

아직 확실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있는 팔레스타인난민촌 대학살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대충 이렇게 요약해 볼수있다.

학살현장을 취재하고있는 현지 특파원들은 팔랑헤黨소속 우익기독교 민병대원과 이스라엘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있는 사드·하다드 소령휘하의 민병대가 이학살의主犯이라 말하고있다.

한편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장은 하다드소령의 안내를받은 이스라엘특공대가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개입설을 일축할물론 한걸음 더나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하다드 소령의 개입설까지 부인하며 범인은 팔랑헤黨 민병대라고주장하고있다.

자기파출신인 게마엘 레바논 대통령당선자가 爆死한데 대한 보복으로 팔랑헤黨이팔레스타인 난민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학살의 주역이 누구냐에따라 학살이유와 이스라엘의개입정도가 달라진다. 팔랑헤黨이 학살의 주역이라면 학살이유는 게마엘 爆死에 대한 보복이 될것이고 이스라엘은 학살을 묵인내지 방조만한것이 된다. 팔랑헤黨과 팔레스타인 민족은 원래가 犬猿之間이다. 지난 74~76년 레바논 내전때에도 두부족은 피비린내나는 살육전을 서로주고받은바 있다.

이때에도 팔랑헤黨 민병대는 팔레스타인난민촌을침입, 팔레스타인 양민을 집단학살한바있다.

팔랑헤黨은 자기파 지도자인 게마엘대통령당선자가 암살되자 협의를 팔레스타인에게 두고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하다드소령 휘하의 민병대가 학살의 주역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스라엘이 완전주역이 되고 하다드는 이스라엘의 하수인 역할을 한셈이된다.

학살의 성격도 PLO철수이후에 PLO戰士가족및 그 지지자에대한 보복살해의 성격을 띠게된다.

학살이자행된 사브라와 차틸라난민촌은 西베이루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중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하고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의 강력한 세력기반이었던 곳이다.

하다드소령휘하의 민병대는 베이루트남쪽 40㎞지점에 본부를 두고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직접지원없이 장거리를 이동하여 西베이루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베이루트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루트 현지특파원들은 학살이 일어난 17~18일사이에 학살장소부근에서 하다드소령휘하 민병대를 목격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하다드의 얘기와 다르다.

하다드는 학살시각인 17~18일 자기휘하의 전병력이 베이루트 남쪽 40㎞지점에있는 자신의 본부에서 엄한 기율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학살의 주역이 누구이든 또 학살의 직접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학살의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살인자 물러가라" 이스라엘군중들이 19일 메나헴·베긴수상의 관저밖에서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 대학살사건에 항의, 베긴수상과 아리엘·샤론국방상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에『살인자 샤론은 사임하라』는 글씨가 보인다.【예루살렘AP電送=聯合】

이스라엘은 게마엘이 爆死하자 불과6시간만에 기다렸다는듯이 西베이루트로 진주했다.

西베이루트로 진주한 이스라엘군은 PLO戰士 2천여명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면서 철저한 가택수색과 가두검문을 실시, 베이루트를 공포의 도시로 만들어버렸고 학살사건은 이런 분위기속에서 일어났다.

게마엘 암살이 이스라엘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보도마저 무성하다.

이스라엘이 西베이루트를 무력강점하기 전까지는 레바논군이 西베이루트를 관장하고 있었다.

학살은 이스라엘군이 西베이루트에 들어간지 불과 하루또는 이틀만에 일어났다.

현지보도들은 이스라엘이 학살당시 난민촌부근을 완전차단하고 조명탄을 쏘아 학살자들을 도왔다고 전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경험한 유태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을 방조또는 사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범하고 있는 역사적인 죄과를 더욱 倍加시켜주고 있을뿐이다.【李炳圭기자】

"이軍 照明彈신호로「虐殺隊」난입했다"

◇슬픈 여인들 사브라팔레스타인난민촌의 집단학살극에서 살아남은 2명의 여인이 19일 난민촌의 한길가에 앉아 친지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흐느끼고있다.【베이루트19일AP電送=聯合】

惡夢의「36時間」

○…대학살은 18일오전까지 36시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16일밤 최초로 학살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사브라난민촌북쪽에 이웃해있는 가자병원의 외국인의사들이었다.

국제의료진의 일원인 영국의사 데이비드·그레이씨는 한사람이 병원으로 달려와『군인들이 집에들어와서 사람들을 무차별 죽였어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살인자들은 너무나 용의주도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거의 학살현장의 목격자들을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살해된 후 용케 살아남은 한6살짜리 남자어린이는 심한 부상을 입은채『팔랑헤黨군인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아빠 엄마 형들 누나를 모두를 쏴죽였어요』라고 흐느끼며 증언했다.

○…몇명이 학살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두난민촌을 본 기자들은적어도 2백구의 시체는 셀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체는 자갈이나 쓰레기로 덮여있었다.

기독팔랑헤당총잡이들이난민촌 근처의 가자병원으로들어와 모든 외국의사들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한의사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 병원으로 피난왔던 1천명가량의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라졌더라고 아랍외교관들은 이같이 학살현장을 전했다.

○…살육의 현장에는 아직도 공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레바논 정부는 19일 대량학살이 자행된 사브라와 차틸라 난민촌에 작업반을 투입, 시체 제거작업에 나섰다. 작업반원들이 가스마스크를 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동안 희생자들을 찾는 친척들은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도 아랑곳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레바논정부 군이 난민촌에도착, 치안을 장악했으나 난민촌 일대에는 공포분위기가 아직도 가시지않고있다.

○…점령군이 도착하기 2시간전 이들 난민촌에는 10여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캠프를 뛰쳐나오면서『카타에브(팔랑헤민병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시 돌아온다』고 외쳐대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팔레스타인여인은 흐느끼면서『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려 와주어야한다』고 넋두리하듯 중얼거리기도했다.

수용소안에는 레바논의 작업반이 도착할때까지 지난17일과 18일 사살된 남녀와 어린이들이 살육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 골목길위에는 한팔레스타인여인이 아기를 품에 끌어앉은채 죽어있는 모습도 발견됐다.

한 차고에서는 15명의 남자가 집단처형된 모습도 보였으며 난민촌의 이곳저곳에서는 시체썩는 냄새가 진동해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코를 막아도 소용이없을 정도였다.

처형을 모면한 사브라난민촌의 사미르·아주브란는 청년은 자신이 하다드군대에붙들려 신문을 받은뒤 풀려났다면서 그들이 달아나는 한 남자를 쫓아가 붙든뒤 벽에 기대게해놓고 머리를 총으로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장교들은 17일 난민촌안에서 총성을 듣긴했으나 난민들이 반항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했었다면서 이스라엘軍은 18일 아침까지는 난민촌에서 끔찍한 집단학살사건이 자행된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등에 총구멍이 난채 집안의 벽가에 쓰러져있는 시체들의 위치나 모습으로보아 그들이 싸우다가 죽은것이 아님은 명백했다.

○…난민촌에서 제일처음으로 발견할수 있었던 사람은 집밖에 나와 절규하며 오열하고있는 여자들이었다. 죽음의 냄새가 유령처럼 그들의 집안팎을 감싸고있었다.

목격자도 없는 조직적 殺戮劇
어느女人"우리가족 몽땅죽어…"
病院피난 千여명도 행방 묘연

어떤 아낙네들은 자기앞에닥친 불행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알턱이 없는 어린것들을 끌어안고 이곳을 떠나기위해 간단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어떤2명의 아낙들은 기자들이 다가가자『어서 들어와 보셔요, 우리가족이 몽땅죽었답니다』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레바논의 우익기독교 민병대원들의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수백명의 팔레스타인난민들은 미국정부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보증하자 사브라 난민수용소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우익민병대들은 난민촌을 장갑차와 탱크로 포위한 이스라엘군들의 코앞에서 이 난민촌에 난입,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백명의 팔레스타인및 레바논인을 집단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군관계자들은 지난 16일 민병대들이 난민들을 학살할 당시 이스라엘군은 민병대들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해 밤하늘에 조명탄까지 쏘아올렸다고 말했다.

○…이난민수용소주위에서 이스라엘군장교와 함께 있던 레바논군장교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레바논인들은 이스라엘군이 조명탄을 발사하는것을 똑똑히 목격했고, 연이어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때 일단의 남자들이 수용소안으로 난입해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베이루트綜合=聯合】

世界의 反應

"對팔人 범죄학살"

▲유엔본부=유엔 안보리는 19일「베이루트 거주팔레스타인人에 대한 범죄적 학살」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 베이루트에서 활동중인 유엔감시단의 규모를 현재의 1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키는내용등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감시단증원제의는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西베이루트철수감시를 위해 병력을 파견했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 제출했다.

"이軍 즉각철수를"

▲미국=아녀자까지 포함된 이번 살육사건에 분노와 경악을 표시하고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즉각철수를 재요구했다.

"怨讐 꼭 갚겠다"

▲PLO=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은 19일 베이루트난민수용소대학살의 원수를 갚을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유엔임시총회의 소집을 촉구했다고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아라파트의장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팔레스타인민족은 반드시 그들과 레바논인들에 피를 흘리게한 모든세력들을 응징하고야 말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아랍國들도 책임"

▲이집트=유력일간지 아크바르는 아랍국가들이 평화를위한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대해 레바논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했기때문에 아랍국가들이 이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이있다고비난했다.

"유엔軍 파견돼야"

▲蘇聯=관영타스통신은 이스라엘軍이 꼭둑각시세력인 레바논기독교민병대를 앞세워 西베이루트에서 잔악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철수를 실현시키기위해 유엔군을 파견할것을 촉구했다.

"이軍잔학 종식을"

▲中共=외교부는 유엔과 세계각국에 대해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의「잔학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즉각적이고도 효율적 행동」을 취할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

"규탄할 말이없다"

▲教皇廳=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이같은 범죄들을 규탄한 낱말들이 없다」고 개탄했다.

메아리

다시「남의말」

지난 8월26일자 本欄에서「남의말」이라하여 외국에 살면서 우리말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안타까와했더니 많은 異議가 쏟아져 들어왔다. 편지를 보내온 사람의 대부분은 재미교포들이었고 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귀국한 사람도있었다. 이 민감한 반응은 외국에 나가사는 교포들로서는 어린이에 대한 우리말 교육문제는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는 말이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재외교포만의 고민이아니라 자꾸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시련이기도 한것이어서, 이들의 입장은 일단 들어볼만하다.

대개 엇비슷한 내용들이라 편지중 2통만 소개하면, 우선 캐나다의 오크빌에 사는 이호웅씨의 편지.

『귀하가 쓴 글의 발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다음의 몇가지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첫째 한국에 살고있는 한국국민과 한국의 핏줄을 가졌으나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모르기는 몰라도 善行한 여대생이 우리말을 가르쳐주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다는 그 7세짜리 어린이는 미국에서 나서 자랐고 십중팔구는 미국에서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런 어린이에게 영어를 외국어라고 부르는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다. 그어린이가 한국말을 잘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겠고 그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 국어는 현실적으로 영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교포들이 어린이를 이용하여 영어를 배운다고 했는데, 한국교포들은 대개 상당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영어를 구사하고있다. 어린이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어린이한테서 영어를 배우기위해 집에서 일부러 영어를 쓰게하겠는가.

셋째는 이곳의 교육제도상 국민학교 6학년정도때 대학진학여부를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저학년에서 우수하지않으면 앞으로의 대학진학에서 탈락하기가 쉽다. 한국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지나치게 한국말을 강조하지 못하는 심리적갈등이 여기있다.

네째로 그어린이의 부모들은 이민8년이라니까 그동안 새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을것이다. 그런 계제에 한국말을 가르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고 영어하는 자기학교에서 일등을 했다면 왜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어린이가 커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후예가되기위해서는 먼저 이민사회의 경쟁에서 이겨야하고 그러자니 어쩔수없이 영어를 열심히 해야한다. 그러나 교포 부모들은 한편으로 상상할수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2세들에게 한국어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아는가. 자식이 커서 세계속의 위대한 한국인이 되도록 채찍질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 뉴욕주의 플러싱에 사는 한영태씨의 편지.

『어느 한국인치고 자녀에게 한국어, 한글을 가르치고싶지않은 부모가 있겠는가. 모든 조건이 그렇게 욕심대로 생각대로 맞추어지지 않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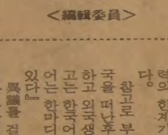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마주대하고 앉아 가르치기가 그리 간단한것이 아니다. 부모나 형, 언니가 아무리 자격이있어도 자녀와 동생을 따로 가정교사에게 맡겨야하듯이 외국에서 자랐기때문에 한국어가 서투르다는것이 자랑이 될수없음은 잘 알고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라는 7~8세 어린이에게 영어교육을 강요하는 고국의 부모들도 그렇게 자랑스러운것은 못된다. 한국의 신문에는 웬영어가 그렇게 많으며 길가의 영어간판은 무어란 말인가. 아이들이 고국의 신문과 월간지를 읽어 이해 할수 있게 해주려면 지금부터 영어공부를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할까보다.

자녀들의 한국어·한글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지경이 될 뿐이다.

참고로 부언한다면 나는 20년전에 한국을 떠난후 아직 모국방문을 한번도못하고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아는것이라고는 한국어밖에 없고 4살난 꼬마도영어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어만 하고 있다』

異議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한국어린이라면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아무 異議가 없다는것이다. 나는 그 意志의 태만을 걱정했었다.

그리고 외국생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한 한국인으로 키우고있는 존경스러운 가정을 얼마든지 보았다는 것을 첨언해두고 싶다.



金聖佑 <編輯委員>

海外토픽

◇大型 시가 벨기에에서 最近 시판애용되고 있는 大型시가. 30㎝나되는 커다란 시가에는 미테랑프랑스 大統領의 사진이 붙어있다【키스톤=聯合】

엘비스紀念館 도둑
★寶石類 7억원률 훔쳐

「로큰롤의 제왕」엘비스·프레슬리의 기념관에 17일아침 도둑이 들어 1백만달러(7억원) 어치가 넘는 보석류를 훔쳐갔다.

이 기념관 관장인 지미·벨베트씨는 이번에 도난당한 보석류가운데는 생전의 프레슬리가 친척과 친지로부터 사들인 다이어먼드반지와 목걸이 약 1백점이 들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도둑은 벨베트씨가 기념관을 내시빌로 이전하기앞서 소장품의 일부를 경매에 붙이기 몇시간을 앞두고 침입했다는것.【멤피스(美테네시주)=UPI】

휴대용 衛星수신기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우산처럼 접을수있고 어디든지 갖고 다닐수 있는 휴대용 위성수신기가 개발돼 1개월내 대당 3천달러에 시판될 예정이다.

미국의 질래스피·앤드·어소시에이트사가 개발한 이위성수신기는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할수있는 2·4m짜리 안테나와 수신기를 작동시키는 건전지, 13㎝짜리 TV세트로 구성돼있으며 지구궤도를 선회중인 위성들로부터 반사되는 美國의 1백5개 TV채널과 이 기계에 부착된「해독」장치에 의해 선정되는 외국TV프로, 증권시장보도등을 수신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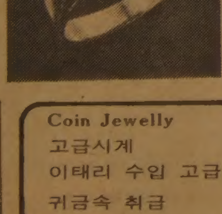
이 수신기는 본래 지구상 원거리지역의 외딴곳 주민들을 위한 교육및 뉴스전달용으로 개발됐던것으로 회사측은 시판이 개시되면 금년내 4백50만달러어치는 판매될 것으로 전망.【서니베일(美캘리포니아)=UPI】

數學교사 轉職바람
★美, 高給높은 기업체로

미국에서는 최근들어 각급 학교의 수학교사들이 봉급수준이 높은 일반기업체로 대거 진출하는 바람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국가방위와 경제의 앞날에 큰 경종을 울리고있다고.

美국립수학교사협회회장스티븐·윌로비박사(뉴욕대교수)는 지난10년간 미국의중등학교 수학교사수가 77%줄어들었고 교사직을 원하는수학과졸업생도 5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걱정했다.【뉴욕=UPI】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 · 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하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남을 돕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해마다 추석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반짝인정」이 반짝한다。일년내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정」을 선사하기에 부산스러워지나 철이 지나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다시 관심권밖으로 돌아간다。불우이웃을 돕는 사회풍토가 즉흥적이고 체계화제도화 돼 있지 않기때문에 생기는 습관성이다。그러나 끊임없이 남을 돕는 시민들이 서서히 늘어가고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있다。그들속에서 묵묵히 남을 돕는일을 맡는 봉사자중에는 가정주부들의 모습이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主婦등女性「自願봉사」앞장
세상 공부하는 기쁨도 함께
名節때 「반짝人心」아닌 지속적獻身

◇자원봉사자그룹이 증가하는것은 사회의 경제적、정신적성숙을 바탕으로 이웃을 향한 관심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상이다。(사진은 봉사활동중인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자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9년까지 전국적으로 6천명을돌파했고 지난 7월말까지는 8천3백13명으로 늘어났다。특히 가정주부들의참여가 두드러져 부녀자원봉사자의수는 매년 1백명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적십자사봉사과장 權仙海씨(여)에 의하면 최근들어 자원봉사를 문의하는 전화도 크게 늘어났으나 지원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할인력이 부족해 전원받아들이지 못할정도라는것。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봉사안내소의 경우에도 지난78년9월 설립이후 해마다 봉사지원자들이 크게늘어나고있다。

설립첫해인 78년에는 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받고 9개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폈으나 금년에는 7월말까지 모두 6백90명이 소정교육을 받고 전국22개봉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전화를통해 각종 인생문제상담활동을 하고있는「생명의전화」(이사장 趙香祿목사)의경우도 지난76년설립당시 1백40명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으나 해마다 지원자가 늘어 현재는 일반상담원 2백50명,전문상담원 50명등 3백여명의 상담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생명의전화」상담원의경우 단순노력봉사가 대부분인 다른봉사기관과는 달리 7개월에 걸친 장기교육을 받아야하는데도 봉사를 자원하는사람들은 해마다 늘고있다。

「생명의 전화」총무부장 李眞淑씨(34·여)는 이처럼 오랫동안 전문교육을 받아야하고 한달에 2번이상(하오10시~상오8시까지) 심야상담을 해야하는 고된 봉사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것에 대해『우리사회의 자선활동에 대한 인식이 즉흥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에대한 연대의식의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고있는 반가운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한국뇌성마비아복지회(회장 金學默박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전문치료기관이 아닌 집에 머물러있는 뇌성마비아들에게 물리치료와 학습지도·생활지도등을 해주고 있다。

사회는 물론 부모등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소외되기 일쑤인 뇌성마비아들을 돌보는것은 웬만한 봉사정신과 인내심으로서는 어려운일이다。

그러나 동복지회가 지난79년「자원봉사자 가정 결연사업」을 시작하자 70여명의봉사지원자가 몰렸고 이중 물리치료학·특수교육학·간호학등을전공한 18명이 자원봉사를지원, 현재는 36명이 뇌성마비아들을 가정으로 찾아 돌보고 있다。

자원봉사의 주력은 여성인력이다。적십자사의 경우 부녀봉사회원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복지협의회사회봉사안내소의 경우도 84%가 여성봉사자인것에서 많은 여성유휴인력이 자원봉사를 바라고 있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있는 주부·직장여성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불우이웃을 돕는 보람을 느끼는것에 그치지않고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자아실현에 도움을 받고 있는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봉사안내소를 거쳐 자원봉사를 하고있는 주부들의 모임인「메주리회」회장 成[illegible]安씨(35)는『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많은것을 배우고 생활자체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 뇌성마비아복지회를 통해 冠岳區奉天洞의 뇌성마비아가정과 결연, 매주 한번씩 가정을 찾아가 3시간씩 생활과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明모양(24·E大대학원특수교육학과1년)은『불우한 장애자들을돕는 보람과 함께달리 얻을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사업가협회장 閔炳植씨(43·三育아동재활원부원장)는『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조직·교육·재정지원등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姜秉泰기자】

警官이 운전免許 부정發給
11명罷免
應試者 돈받고 合格시켜

서울시경은 20일 면허과소속 경찰관들이 돈을받고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준 사실을 적발, 면허3계 학과반담당 金榮坤경사, 韓相順경장등10명, 東大門경찰서 朴鍾烈경사등 관련경찰관11명을 파면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브로커 張成一씨(40·韓德자동차학원장)를 연행, 조사하는한편 부정합격자 殷검순씨(42·여)등 8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용운전면허발급업무를 맡고있는 金경사등은 지난9일 東大門경찰서 朴경사를통해 브로커張씨의 부탁을받은뒤 운전면허응시자8명으로부터 1인당 25~27만원씩 받고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었다는것。

이들은 ▲학과시험의 경우 평소 훼손대체용으로 보관중인 컴퓨터채점답안지를 나눠준뒤 수거과정에서 정답으로 작성해둔 가짜채점표와 바꿔치기했고 ▲기능시험의 경우 컴퓨터채점카드를 완전삽입치않고 응시케한후 불합격이되면 퇴장시킨후 채점표를바꿔치기해 합격시켰다는것。

시경은 이같은 자동차운전면허발급상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면허시험장에 감찰계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실종美軍자진越北"
駐韓美軍사령부 公式발표

지난달28일 비무장지대에서 실종된 美2사단소속 조셉·T·화이트일병은 자진월북한 것이라고 20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발표했다。

주한미군사 대변인 래리·J·아스 공군대령은 이날상오 내외신기자회견을갖고 그동안 실종당시의 상황과 화이트일병의 방에서 발견된소지품등을 조사한 결과 자진월북이란 결론을 내렸다고밝혔다。

아스 대변인에의하면 화이트일병은 월북당시 M16소총으로 초소문에 사격을가하고 초소를 이탈, 약1시간뒤 한국말로『내가간다, 도와줘』라고 고함을치며 중앙분계선을 넘어갔으며『돌아오라』는 미군관계자들의 설득에불응했다는것。

이어 상오 7시30분께 미군초소 북서쪽 1㎞지점에 모자를벗은채 전투복에 파커를입은 금발의 화이트일병이 쌍안경으로 목격됐다는것이다。

아스 대변인은 또 화이트일병이 월북한 다음 그가 쓰던 휴대품을 조사한결과 다량의 북한선전책자와 북한생활에 관한 신문기사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스대령은 그러나 화이트일병의 월북동기는 아직도알수없으며 미군측은 그와의면담을 공산측에 계속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배 姜仁泰씨自首
愛情행각 變造여권

韓昇熙씨 李俞政양의 위조여권과 관련, 수배중이던 姜仁泰씨(27·경기城南市丹垈洞4648의20)가 19일상오 서울西部경찰서에 자수해왔다。

경찰에서 姜씨는 지난80년1월 Y무역회사에 근무할당시 알던 宋長俊씨(57·수배중)에게 동생에게서 빌린여권을 넘겨주고 8월말까지 모두 32만4천원을 받았을뿐이라고 주장했다。

姜씨는 또 지난 3월중순 친구 張모씨(42)의 소개로 李淑씨(52·수배중)를 처음 만났으며 그뒤 4차례만 만났다고 말했다。

수사비명목 돈받은 派出所長 파면

서울시경은 20일 韓昇熙씨 李俞政양사건을 신고받고 李양가족들로부터 수사비를 받은 서울西部경찰서 慶北파출소 소장 崔永煥경위(43)를 파면했다。

崔경위는 수사비명목으로 네차례에걸쳐 모두 45만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탈영한 김진우 방위병이 주유소종업원을 사살한뒤 몰고 달아났던 충남3바2263호택시。고속도로 옆 밭에 전복된뒤 차를버리고 달아났다。【全州=聯合】

防衛兵이 주민射殺
무기훔쳐 脫營…對峙하다 잡혀

【全州】방위병이 M16소총과 실탄、수류탄등을 훔쳐 탈영、민간인 1명을 쏘아죽이고 군경과 대치하다가 생포됐다。

20일 새벽2시께 충남大德郡 모 군부대에서 보초근무를하던 金珍鎬방위병(21)이 쇠톱으로 무기고의 자물쇠를 잘라 문을열고 M16소총1자루와 실탄20발,권총실탄3발및 수류탄5발을 훔쳐 탈영했다。

金방위병은 부대앞에서 충남3바2263호 한시택시 운전사를 위협、호남고속도로 礪山휴게소의 홍국주유소까지 끌고가 4천5백원어치의 휘발유를 넣고 기름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李建浩씨(22)를 그 자리에서 쏴죽이고 자신이 직접 택시를 몰고 全州쪽으로 달리다 50여m도 못가 자동차가 전복됐다。

金방위병은 차를 버리고 인근 전북 益山郡礪山面濟南里 섭조마을 임재수씨(51)씨집에 들어가 임씨가족을 쫓아내고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군경과 대치하다 이날상오10시30분께 군경이 쏜 최루탄에 정신을잃고 붙잡혔다。

對日 歪曲항의示威
在美아시아人 2천

【워싱턴=李文熙특파원】약 2천명의 재미아시아인들이

"月給28만원 不當"
택시運轉士들 농성 "業主주장일뿐"

서울시 택시노조협의회(회장 李漢龍·45)산하택시 운전사2천여명은 20일상오 8시부터 서울東大門區新堂1洞韓門洞2街 전국자동차노조 연맹회관등 두곳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고정월급제내용에 항의하는 농성을벌였다。

운전사들은 서울시가 월급여액을 28만1천3백원으로 결정한것은 택시회사측의 주장만을받아들여 운전사들의 권익을무시한 것으로▲1일사납금 6만8천원을 그대로두고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은무의미하며▲월급여28만1천여원은 상여금과 성과급및 주·월차수당을 포함해 계산한것으로 실제월급은 16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월급제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중 1천여명은 이날상오11시께 淸溪川을 거쳐 鍾路3街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의해 강제해산됐으며 일부는 서울시청앞까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하오 5시현재 3백여명의 운전사들은 협의회 사무실에서 32만원선으로 고정월급제가 다시마련될때까지 극한투쟁을 계속하기로결의、농성을계속하고있는데 하오1시부터 노조대표 4명과 사용자대표4명이 노동부임금복지국장의 주재로 노사협의를계속하고있으나 타협점을찾지못하고있다。

全南大生1명구속
불온 유인물 살포

【光州】光州서부경찰서는 20일 전남대 계측공학과 4년 李春姬양(22)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양은 지난15일하오 1시10분께 전남대 학생회관 2층에서 불온유인물 1백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聯】

故 李殷相씨 빈소에 全大統領 들러 弔問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19일하오 지난18일 별세한 故鷺山 李殷相씨 자택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들러 조문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미망인 朴三順여사와 맏아들 水長씨등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위로한뒤 마침 문상온 학계·문화예술계인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우리는 鷺山선생의 위대한 민족정신과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나가야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鷺山선생은 그전에 뵈었을때는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수없이 크겠으나 우리겨레 모두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고인을 기렸다。

故鷺山에 文化훈장
국립묘지 安葬키로

정부는 20일 故鷺山 李殷相씨에게 文化훈장 金冠章(1등급)을 추서하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 제1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키로 했다。이에따라 朴贊鉉총무처장관은 이날하오 서울龍山區漢南洞 고인의 빈소에 들러 훈장과 社會葬례보조비 2천만원을 전달했다。

漁船 침몰
3명死亡·6명失踪

【東海】울릉도로 오징어잡이 가던 강원도 삼척항소속 제1유성호(1백35톤급·선장 남석진·49)가 20일 상오 3시30분께 울릉도 인근해상에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선원 35명중 3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26명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울릉항 소속 해연호등에 구조 됐다。

사망및 실종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김낙용(27·東海市墨湖洞13統1班)▲김운동(69·東海市墨湖洞16統4班)▲최택수(62·釜山 釜山鎭區蓮池洞240의69)

◇실종자 ▲신민휴(60·기관장·東海市墨湖洞19統2班)▲감현겸(22·馬山市檜原2洞)▲박재웅(51·釜山 東萊區書洞252)▲임종진(49·溟州郡江東面山城隅里)▲유종현(20·東海市於達洞3統6班)▲이달중(55·東海市發翰洞12統14班)【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在美 60만同胞의 최대祝祭
L A「코리안퍼레이드」盛況

【로스앤젤레스支社】在美 60만동포사회의 최대 축제인「코리안·퍼레이드」가 19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베풀어졌다。코리아타운 번영회(대회장이희덕·집행위원장김기성)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지사가 주관한 이번 제9회 코리안·퍼레이드는 韓美수교1백주년을 기념、그랜드·마셜(대축제장)에 L·A市와 자매도시인 釜山의 崔鍾鋐市長이 선정되고 釜山市 각계대표들과 계성여상 고적대까지 참가해 매우 이채로왔다。

이날 코리아타운의 올림픽街 연도에는 9만여명의 관중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특별히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꽃차、釜山―L A자매도시기념꽃차、코리안·퍼레이드축하 꽃차등 釜山시민이 기증한 3대를 비롯 한국도자기、태화고무、삼화약품、진로소주、동아제약등 본국에서 총9대의 꽃차가 참여해 동포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픈·카 퍼레이드에는 그랜드·마셜崔釜山시장을 비롯、張聖萬국회의원(民正)朴民秀 L A총영사、캘리포니아州 상원의원에 입후보한 교포3세 김정숙여사및 L A 한인단체대표들이참석했다。

미국인으로는 마치·퐁·유 캘리포니아州총무처장관을비롯、州상하의원、LA市의원、검찰및 경찰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코리안·퍼레이드에는 AP、UPI등 세계적인 통신사와 LA타임즈、헤럴드·이그재미너등 언론기관、멀리 西獨의 함부르크시에 있는 웨스트·저머니TV방송에서까지 특별취재를 했다。

그남편의 그아내
清白吏賞 黃仁奭경정부인 高大房씨
갈라진손·주름진얼굴 苦難의內助 38년

清白吏의 아내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보였다。82년 清白吏로 선정된 서울시경면허2계장 黃仁奭경정(61)의 부인 高大房씨(57·사진·서울江東區葦新1洞155의21)의 손은 막노동꾼의 손처럼 갈라져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있었다。허리도 굽었다。방송국에 갔다 막 돌아온길이라는 옷차림도 외출복이라 할수가 없었다。

清白吏의 아내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한눈에 엿볼수 있었다。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黃경정의 뒷전엔 高씨의 고달픈 내조가 숨어있었던것이다。

충남燕岐郡부농의 막내딸로 19살때 시집온 高씨에겐 黃경정은「별난사람」일 수밖에 없었다。쥐꼬리만한 월급이나마 여기저기 나눠주고 집에 가져오는일이 별로없었다。남편에겐 집안살림은 먼이야기였다。쌀이 떨어졌다고 말해도 남편은『굶어죽기야 하겠느냐』며 웃기만할뿐이었다。

결혼4년만에 高씨는 생각을 고쳐먹었다。닭·오리·돼지등을 키우기시작했다。연탄과 옹기를 실은 리어카를 끌었다。그런데도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한마디 없었다。원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남편의 성미를 알지만 高씨는 그 야속함에 눈물도 수없이 흘렸다。

옹기행상을 하다 노점단속에 걸려 즉결심판을 받는동안 아는척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었던 남편。

그런 남편이 결혼 10년이 지나면서부터『이세상에 둘도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밥싸가지고 찾아다녀도 못구할 과분한 남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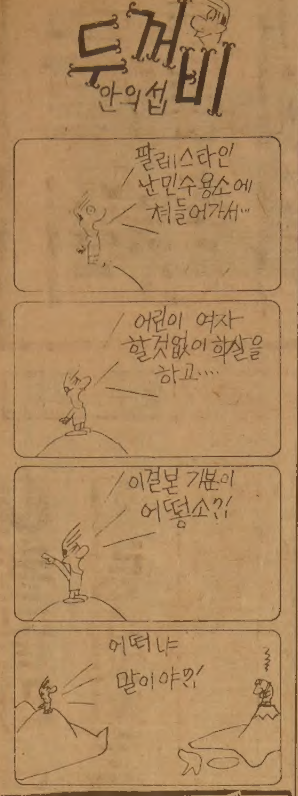
그녀는 아이들에게『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강조해 왔다。

高씨는 남편의뜻을 살려주는데 모범이되기위해 남자로서도 벅찬일을 마다하지않았다。무거운 리어카를 끌다 허리를다칠때도 있었다。

高씨의 고생은 헛되지않았다。장남(33·판사시보)등 3남1녀는 모두 대학문에 들어섰고 5년전엔 지금의 집까지마련했다。그리고 남편은 清白吏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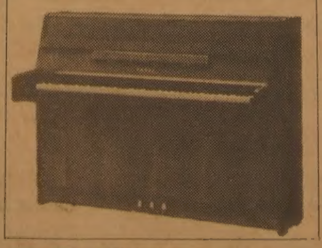
『「별난남편」에「별난마누라」란 소릴 수없이들었지만 그분의 흔들리지않는 신념이 있었기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던것같아요。오늘이 있고보니 남자에겐 곁눈질팔하는눈치가없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때가있다고 느껴지누만요』

【方旼俊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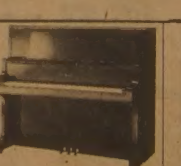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한국新 모두 9

崔允喜(百m배영) 1분6초壁 깨

전국水泳 폐막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수영대회 최종일경기서 崔允庭(상명여고) 允喜(사대부여중) 자매가 2개의 한국신을 추가하는등 모두 9개의 한국신기록을 내고 19일 폐막했다.

崔允喜는 이번대회서 배영 1백m와 2백m서 3개의 신기록을 수립했고 언니 允庭은 자유형 1백m에서 2개를 작성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로는 崔允喜와 方駿榮(경기고)이 뽑혔다.

崔允喜는 잠실실내 수영장서 열린 대회최종일경기 여중배영1백m서 1분5초84의 기록마크, 처음기록했던 1분6초F를 0·16초단축하고 또다시 한국 최고기록을 세웠다.

한편 崔允庭도 여고자유형 1백m서 첫날의 1분1초92를 0·16초단축, 1분1초76으로 이틀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여고계영 4백m서는 서울팀(崔允庭 李始恩 金貞和 金時希)이 4분18초22로 종전기록을 0·60초 앞당겨 한국신을 추가했다.

한편 18일 대통령기대회에 이어 벌어진 아시안게임파견 선수선발 공인기록회에서는 方駿榮(접영1백m), 李忠原(고려대·배영1백m)과 崔允庭·允喜자매(여자개인혼영2백m)가 각각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신

◆대통령기 최종일(19일)

▲여중배영1백m=崔允喜(사대부여중)1분5초84(종전1분6초F) ▲여고자유형1백m=崔允庭(상명여고) 1분1초76(종전 1분1초92)

▲여고계영4백m=서울 4분18초22(종전4분18초82)

◆공인기록회(20일)

▲남자접영1백m=方駿榮(경기고) 58초60(종전59초09)

▲남자배영1백m=李忠原(고려대) 1분03초43(종전 1분03초82)

▲여자개인혼영2백m=崔允庭 2분26초34, 崔允喜 2분26초81(종전2분29초71)

李明洙 9위

유고 세계力道

【류블랴나(유고)20日=聯】 한국의 李明洙는 20일 오후4시(한국시간)이곳 티볼리 체육관에서 벌어진 제36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일째 56kg급 경기에서 토틀2백45kg으로 17명가운데 9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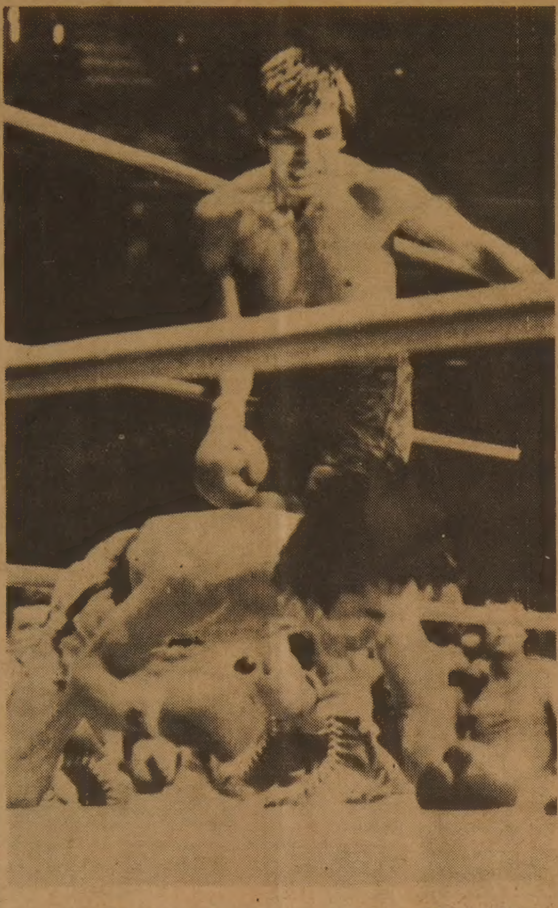
李는 이날 인상경기에서 1백5kg으로 9位, 용상에선 1백40kg으로 8위를 차지했다.

李는 인상에서 1백5kg에 도전, 1, 2차시기를 실패했으나 마지막 3차시기에서 성공했고 용상에서도 1백40kg에 도전, 역시 1, 2차시기에 실패한 끝에 3차에서 성공했다.

한편 불가리아의 코자바세프는 토틀 2백80kg으로 세계신기록(종전279·5kg)을 수립, 우승했다.

첫날 52kg경기에서 폴란드의 쿠토프스키가 인상 115kg으로 세계신기록(종전114kg)을, 그리고 역시 폴란드의 엘리크가 용상에서 143·5kg으로 세계신기록(종전143kg)을 세웠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방"에 맥없이 침몰 WBC슈퍼페더급 타이틀매치에서 도전자崔忠日이 7회초반 라파엘·리몬의 강타를 복부에 맞고 무릎을 꿇고 있다. 【로스앤젤레스18日UPI電送=聯合】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温室복서」量産 6連敗의 충격

험난한 세계頂上의 길엔 "요행"있을수 없다

弱者골라 "묵사발" 英雄心만 길러

기량·맷집·鬪志갖춘 복서 아쉬워

張正九 崔忠日의 패전으로 한국프로복싱은 최근 세계도전경기에서 6連敗의 참담한 기록을 보이고있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것이다. 세계도전무대에서의 잇단 침몰은 한국권투의 행정관리능력과 선수지도 역량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점에서 국내프로복싱의 새로운 전환을 기약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권투委의 無力행정도 問題
팬은 勝負떠나 게임 즐겨야

한국권투가 국제무대에서 근본적으로 허약한것은 허상(虛像)의 챔피언, 온실(溫室)속의 챔피언만을 길러온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동안 우리의 지도자들은 프로답게 선수를 키워온것이 아니라 장래성있는 선수들에게 과대망상적인 영웅심만 가득심어주어 그들의 미래를 그르치게 했다.

이같은 풍토 아래에서는 기량·맷집·투지(승부근성)를 고루갖춘 훌륭한 프로선수가 배출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이비 프로선수, 실력이상으로 미화(美化)된 상품들이 활개를 치게된다.

선수들의 인기만을 생각한 나머지 강한 상대자들을 의식적으로 기피, 약한 선수들을 골라 묵사발 낸뒤 KO주먹 連勝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큰소리치는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팬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張正九-사파타, 崔忠日-리몬전에서 드러난것처럼 중요한것은 전적이나 KO율이 아니라 어떤강자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떤상대를 KO시켰느냐는 사실이다. 과거 리몬이 싸운상대와 崔忠日의상대선수를 비교할때 한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崔忠日처럼 한방을맞고 무력하게 무너진다면 프로선수라고 하기어렵다. 급소에 결정타를 맞으면 천하장사라도 어쩔수없다고는 하지만 崔의 약한 맷집은 나바레테, 리몬과의 두차례경기를통해 확인된 셈이다. 맷집은 강도높은 훈련을통해 서서히 길러지는데, 강자기피증에 빠져 호된 매를 경험하지못했던 우리선수들이 조금만 강도높은 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한펀치 공포증으로 스스로 게임을 포기한것이 최근의 현실.

맷집을 갖추지 못한 유리의 선수는 프로복서로서 자격미달이다.

세계타이틀매치서의 잇단 패전과 관련, 새로운 觀戰풍토를 뿌리내리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것이다. 일부 관중들은 게임을 즐기는것이 아니라 한국선수의 손이 올라가는 승리감에만 도취, 경기내용이 어떻건 세계챔피언이 되면 영웅으로 추켜 세웠다가 패하게되면 가혹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프로권투가 건전하게 육성되기 어렵다. 【金仁奎기자】

崔忠日 KO패

챔피언 리몬에

【로스앤젤레스=趙鴻鎭기자】 崔忠日(25)의 두번째 세계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19일 상오(한국시간)이곳 올림픽 오디터리움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WBC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서 도전자 崔忠日은 챔피언 라파엘·리몬(28)에 중반까지 우세하게 앞서가다가 리몬의 기습을 옆구리에 허용, 7회 2분30초만에 KO패했다. 崔는 6회까지 예리한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며 리몬을 공략했으나 7회중반 오른쪽 갈비뼈부근에 결정타를 맞았다. 崔는 두차례의 다운후 가까스로 일어났으나 리처드·스틸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6회까지 채점서는 척·하세트, 딕·영등 두부심은 각각 60-55, 루의·오르테가부심도 60-54로 崔의 우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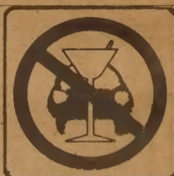
成光培등 12명우승

전국 아마복싱大會

제14회 전국 아마복싱우승권대회 마지막날경기(19일·서울운배구장)에서 成光培(라이트플라이급)등 12체급의 우승자가 가려졌다.

◇체급별우승자

▲라이트 플라이=成光培(순천금당고) ▲플라이=崔明鉉(안성고) ▲밴텀=金大顯(전남체고) ▲페더=朴鍾載(한영고) ▲라이트=都鍾太(부산체고) ▲라이트웰터=許정섭(현대칼라) ▲웰터=李琦鉉(동신체) ▲라이트미들=崔南銘(평택복싱) ▲미들=尹炳日(신도체) ▲라이트헤비=李光淵(인천체고) ▲헤비=尹동주(숭의실고) ▲슈퍼헤비=金용선(순천상고)



金奉淵18호 홈런

프로야구 해태、三美 따돌려

【光州】해태 타이거즈의 강타자 金奉淵이 홈런18호를기록, 홈런·더비 단독선두를 질주하고있다.

金奉淵은 19일 光州홈구장에서 벌어진 三美·슈퍼스타즈와의 경기2회말 선제솔로홈런을날렸다. 해태는 이날 金奉淵에이어 2회말 金鍾模가 3점홈런을, 8회말 金城漢이 2점홈런을날려 三美에 7-5로 승리했다.

19일 열릴 예정이던 大邱및 大田경기는 비로 연기됐다.

◇19일전적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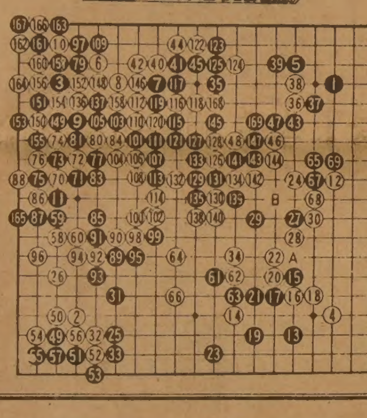
삼미	000	005	000	5
해태	050	000	02×	7

▲홈런=金奉淵(2회) 金鍾模(2회·3점) 金城漢(8회2점 이상해태) 【聯】

第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總譜 169手完·黑不計勝 (각4시간·덤5집반)

白(初段) 崔 珪 炳
黑(6段) 徐 能 旭



徐6段도 本選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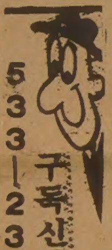
지난해 덧없이 시든組에서 탈락한 徐6단은 이번을 패승하고 다시 본선에 복귀했다. 기록을 따지면 제10기부터 등장하여 계속 5년간 名人戰시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도전권을 따지 못했으나 역시, 曺·徐를 위협하는 맹장임은 틀림없어서 올해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한편 혜성처럼 나타난 崔초단은 아무래도 徐6단에 미치지 못한 느낌이며 또 그간 뭇고단자를 꺾느라고 기력이 쇠진한데다 생전처음의 큰승부인 때문에 한껏긴장되어 제실력이하의 졸전을 범었다고도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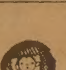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장래가촉망되는 옥의원석, 앞으로의 활약이 주목된다. 『무서운 초단』의 기염은 이미 충분히 토했기 때문이다.

崔초단이 본선진출을 지나치게 의식한 점은 포석에서 白22를 보통대로 「A」에 두지않은 탓에 白24가 필요하여 한건을 뒤지는데서 때이르게 나타났다.

게다가 黑27의 과수에 대하여 白28, 30이 약했으며 (28은 白「B」로 강하게 포위하여 외세를 쌓아야했다) 白36, 38을 방치한 때문에 黑43을 당한 타격이 커서 대세를 잃었고 특히 白66의완착으로 黑65이하69를 허용하여 열세가 가중되었다. 白70이하는 승부수였는데 白90으로 97자리를 지키지 않은것이 최후의 패착, 이뒤는 黑의독무대였다. 78…70, 82…73. 159…150. 【一凡】



구독신청은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1>

朴婉緖 作
金光培 畫

미리 온 아이 ㉔

오목이는 아기와 함께 출근하는 일환이를 대문밖까지 배웅했다. 남씨는 좋고 아기는 아빠, 빠이빠이가 뭔지를 알기엔 아직 먼 갓난 아기였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었다. 예쁜 아기를 안고 대문밖까지 아빠를 배웅하는 일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꾼 행복한 주부상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것이었다.

일환이 역시 그러고 싶어 하는 그녀를 구태여 말리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돌아보며, 비탈길을 우쭐우쭐 내려갔다. 산동네는 이른 아침부터 햇빛이 넘치고 있었고, 그는 그 햇빛속을 으스대며 걸었다.

오목이는 행복한 미소로써 그를 배웅하면서도 내일 다시 그를 배웅할 수 있을까? 오늘이 행복한 날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고 방정맞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그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됐다. 일환이는 좋은 아버지요 좋은 남편이었다. 그는 입쩍 들어와 연탄아궁이를 손보아 구들장이 잘잘 끓게 만들었고, 문과 창들을 스폰지로 막아 방안의 웃풍을 없앴다. 아기의 귓가에서 흔들면 새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사왔고, 아기가 자다 깨서 쳐다볼수있는 곳에서 호랑나비가 춤추는 모빌도 사왔다.

주인집만 하고도 네가구나 세든 집이었다. 나머지 또는 한두 칸씩 세든 집이 사는 여자들이 모두 오목이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들 보기에 오목이네 살림은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어 보이는것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그여자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귀찮았다. 숫제 일년내내 놀고먹는 남자도 있었고, 뜨내기 막벌이를 다니다가 겨울동안 그나마의 일도 끊겨서 놀기도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집에서 든 벌이를했다. 몸통 따로 팔따로, 깃 따로난 스웨터를 하루에도 몇십벌씩 꿰매서 꼴을만드는일을하는 여자도 있었고 본드로 인형의 머리와 몸통을 붙이는 일을하는 여자도 있었고 봉제품 완구뱃속에 다 솜을 단단하게 처넣는 일을하는 여자도 있었다. 또 솜을 근이탐시고해서 온종일 슈퍼마킷으로 들어갈 마늘을 까는 일을하는 여자도 있었다.

어떤일이나 특별한 기술없이도 곧 숙련되는반면 보수는 미미했다. 여자벌이니까. 그 여자들은 그 미미한 보수를 이렇게 당연한걸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남자가 벌이를 나갈수있으리란 꿈을 버리지 않았다.

늙도 젊도 않은 안집 여자는 과부였고, 외아들에 벌이 시원찮은 외아들이 셋이었다. 장성한 외아들이 온종일 빈둥 빈둥 놀고 지냈다. 담배도피우고구멍가게에 앉아 가끔 술도마시고, 누이 녹생도 패주고 반찬투정도 하면서도 돈벌이만은 안했다.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놈이 지랄병이래요. 저집도 저●들이 애물이라니까』

옆방여자가 오목이한테 이렇게 귀띔을 했다.

『그럼 그 남자를 본적이 있나요?』

『보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요. 좋다는약은 다해 먹였다니까 아마 나쁘다가 그러다나봐요』

그후 그녀는 주인집 젊은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말로만 듣던 간질이란 도대체 어떤 전조(前兆)를 앞세우고 오는걸까? 그녀는 그게 궁금해 조바심이 났다. 어떻게든 그걸 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젊은이의 행동거지는 허구헌날 천연덕스럽기만 했다. 아무리 보아도 내부의 자신을 빠시킬 위험물을 감춰두고있는 티는 나지 않았다.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감사말씀
금번 저의 식당은 타사업관계로 스텍하우스로 음식종류를 바꾸어 메니저가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지도 성원하여 주시고 찾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케네디안음식으로 바꾸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의 식당은 9월30일까지만 종전대로 영업합니다.
Choi's Restaurant
최 영 호 배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엑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함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서도 됨)
전화 : (416) 533-2361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흡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성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새 일 여 행 사
619A BLOOR ST. W.
(신중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광 고 접 수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완전한 차체수리
★Rust Proofing.
★수리중차 대여
37 Primrose Ave. Toronto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정태, 이현우 사범 직접세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구함
261 Scarlett Rd.
(at Eglinton Ave. W.)

(Variety & Grocery)
성실한 가게 Helper 구합니다.
전화 : 769–5956

남자 파타임 가게 헬퍼 구함
(Finch × 웨스톤 근처)
전화 : 741–1465

좋은사람 찾음(Gain)
877 Dundas St. W.
Batharst 서쪽 300여m거리

웨이트레스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전화 : 656–0456. 654–6609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사무실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으로 경험있고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분 환영합니다.
전화 : 365–1489. 763–3289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여권

성명 : 김우경
여권번호 : T.R.W.000768
연락처 : 469–2082 750A Broadview Ave.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25세 미혼여성. 신체건강하고 착실한 남자분 연락바람(현재 가족들이 Toronto에 거주)
전화 : 431–6474

베비시터

5살난 여자아이 보아주시면서 살림 도와 주실분.
(10월15일경부터 입주 가능한분)
전화 : 274–8439(R) 278–4867(Mrs. 옥)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 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매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536–0715. 368–9018

STORE 장비 급매
◉ Shelve (Wall 120 ft. Floor 144ft)
◉ Card Rack (20 ft. Card도 포함)
◉ 기타 선물용 유리 Rack
연락처 : 622–0323 Mr. Lee (6p.m 이후)

"봉학농장"
다음장소에서 9월2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배달하오니 신선하고 싼 채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 2433 Finch Ave. W.
◉오후 7시30분 : 90 Paisley Blvd. W.
(1 Mile North Q. E. W. Missi. Ont.)
◉오후 9시 : 10 Willowridge
(마틴그로브 × 에그린톤)
전화 : 1–775–6256 Mr. 강.

---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4

Variety Store매매(No Grocery)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Rd.)
전화 : 265–9000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 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n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 (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Building for Sale. 982 Pape Ave.
Store & Apt. Suitable for any Kind Business.
전화 : 422–5029 (Mik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가정 형편으로 급매
VARIETY STORE. 좋은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문의 : 466–0309

이 기회를 놓치다니요!
Good Mortgage rate에 놀라실겁니다!
Variety Store & Detached Building(Bloor & Shaw)
Good Corner Property. Private Drive Way & Garage
다운페이 : $15,000~$20,000
장래 전망이 대단히 좋읍니다.
Call : Steve Politis now
Premore Real Estate 536–5600

Store for Sale("Lambton" Gift & Variety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4020 Dundas St.W.(at west of Scarlett Rd.)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House for Sale (Private Sale)
완전히 집수리 끝낸 모퉁이에 위치한 집.
위치 : Annex(St.George & Bloor)
크기 : 4 Apt House(Legal fourplex). 아스킹 : $299,000
※집으로부터 연수입 $30,000/Year.
Call. Mr./Mrs. Roman 922–6888

Aurora의 최고지역
새로 수리를 끝낸 2 Bed Room Apt.가 이층에 있으며 일절 새장비로 갖춘 Variety Store.
Call : Mr. Jones 889–8654
W.R.Case Realty Ltd.

Private Sale(No agents)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가게. 가스바
on main Highway. Toronto로부터 150mile 동북쪽에 있음.
연매상 : $600,000. 10% Financing.
연중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임.
3 Apt. House 포함
아스킹 : $185,000
꼭 관심있으신분 반드시 영어로 문의바람.
Call (613)332–1312 Mr. Webster

Donuts Shop for Sale

개업한지 한달 되었으며 전망 대단히 좋음.
Good Lease 와 Cheap Rent.
Donuts Shop Busines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오셔서 장소를 보시고 의논해 보세요!
580 Queen St. W.(At Bathurst)

Coffee Shop in Medical Building
Long Lease & Low Rent.(Short hours)
call after 7:00p.m. 499–5217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 주6일 오픈. 월순이익 $2,000이상.
Lottario Machine있고 Plaza안에 있는 Store. 241–5419

가게렌트

가게 세놓읍니다.(Dundas St. & George St.)
Corner에 위치한 바쁜 거리에 있음.
전화 : 763–3289. 493–9599

아파트렌트

3 Bed Room Apt. 세놓음
유지비 포함. $478/M.
지역 : Weston × Finch. 전화 : 742–6309

하숙 또는 독신자 방세 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상세문의는 6시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이 성웅)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차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미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간이 모텔

방렌트 하실분.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너도 나도, 어린이도 어른도, 아내도 남편도,

다같이 걸읍시다

한인양로원건립모금을위한

WALK-A-THON (보행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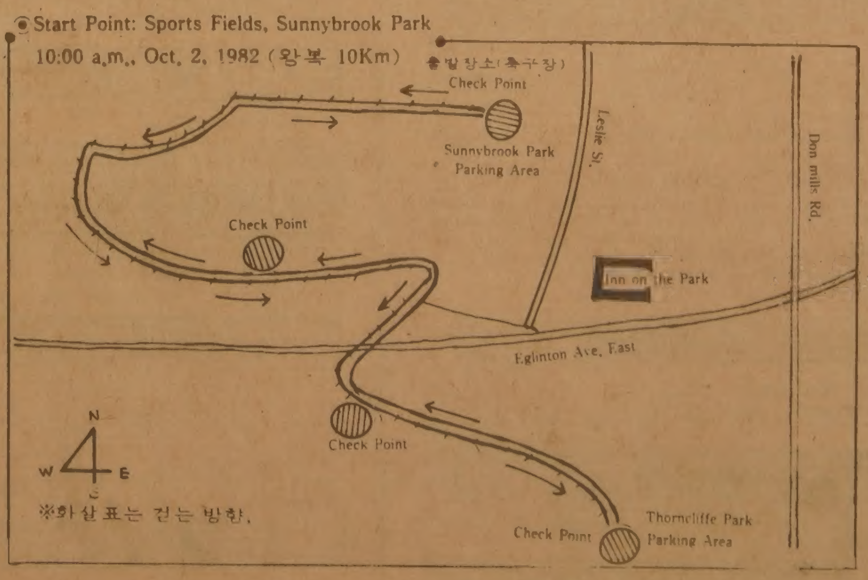
불과 10여년 이민역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우리부모는 우리가모신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과업에 착수할 때를 맞았읍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여러 너싱홈(Nursing Home)에서 음식과 언어에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런곳에서 여생을 보낼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는방법으로 저희들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보행마라톤(WALK-A-THON)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도움되겠읍니다.

△때 : 1982년10월2일(토요일) 아침9시30분
△곳 : 써니부룩공원축구장 (EGLINTON×LESLIE ST.)
△참가신청배부처 : (1)양로원건립위원회 이학현 463-6334 · 최상수 656-0867
나상선 851-5735 · 송인문 881-5590
(2)한인YMCA : 536-1166(MR. KIM)
(3)한국일보사 : 533-2361
(4)민중신문 : 537-3473
(5)코리언저널 : 757-8000

대회고문 : 이규현 주 캐나다 한국대사 ·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HON. L. GROSSMAN 온타리오주 보건부장관
HON. F. DREA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대 회 장 :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
진행위원장 : 천중환 한인양로원 건립 위원장
진행위원 : 김창열 차선겸 유영갑(R) 송인문 조덕남 최동주 나상선
강준남 한승권 이학현 유영갑 박경택 김명규 이병권 나영삼
유영린 심태섭 송남성 신영식 최상수 김인환 장연탁 김이열
후원단체 : 토론토총영사관 · 한인회 · 한국노년회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무순)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 코리아타운번영회 ·
동우회 · 한인YMCA · 와이즈맨클럽(베타) · 라이온즈클럽 · 간호협회 ·
한인교역자회 · 무역인협회 · 한인골프협회 · 백커경영인협회 ·
맥스경영인협회 · 한일은행 · 한인신용조합 · 대한부인회 · 조흥은행 ·
한국일보 · 민중신문 · 코리안저널



= 보행마라톤 참가법 =

1.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후 이웃, 친지, 친척, 어린학생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본 워커톤의 취지를 설명한다.
2. 총 보행거리 10Km중 걷는 거리 Km당 얼마의 헌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 Km당 헌금을 약정받는다.
3. 걷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4. 약정자의 성함과 주소, 전화번화, Km당 약정액을 신청서 용지에 있는 양식 속에 기입한다.
5. 가능한한 많은 분들로부터 약정액을 받아 기입하도록 한다.
6. 10월2일 써니부룩·파에 오전 9시30분까지 나와 약정액이 기입된 신청등록 용지를 제출하고 대회 등록을 한다음 예정된 워커톤 코스에 따라 걷는다.
7. 확인 도장을 받으면서 10Km를 다 걷고 나면 최후 확인도장을 받는다.
8. 10Km를 다 걷지 못하고 중도에 그치더라도 중간 검문소에서 그때까지 걸은 거리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는다.
9. 걷는 것이 끝난 후에는 기부금 약정자에게 연락하여 자기가 걸은 거리만큼의 약정 금액을 계산하여 받고 총액을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회계:
   Treasurer,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c/o Mr. Hak Hyun Lee, 900 Queen St. E.
   Toronto, Ont. M4M 1J3 앞으로 10월16일까지 보내준다.
   "예"
   약정금이 1불이고 워커톤 대회 참가자가 걸은 거리가 8Km일 경우 8Km × $1.00= $8. 즉 $8을 그 기부자로부터 받으면 된다.
10. 본 위원회는 가장 많이 모금하신분 5명과 가장 많은 기부자(Sponsor)를 가진분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11. 점심은 각자가 지참, 음료수는 본위원회에서 제공.

* 상품 : 10 스피드자전거 (10대)
(5대→최고의 모금 실적을 올리신 분)
5대→스폰서를 가장 많이 받은사람)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대회장 박 인순
위원장 천 중환 · 이사장 김 명규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Phone : (416)826-6664